

1860~70년대 전반 조선 지식인의 대외인식과 洋務 이해

노 대 환

머 리 말

1. 1860년대 초반의 청 정세 인식
2. 1860년대 중·후반의 양무 이해
 - 1) 1860년대 중반 청 정세 인식의 변화와 양무
 - 2) 병인양요 이후 主戰論의 강화와 비관적 양무 이해

3. 1870년대 전반 양무에 대한 관심의 확산

- 1) 禦洋策 비판과 양무에 대한 관심
 - 2) 1873~4년의 使行과 양무 이해
- 맺 음 말

머 리 말

제2차 중·영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해 북경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은 조선의 조야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무엇보다도 조선은 제2차 중·영전쟁을 통해 서양의 물리력을 확실히 실감할 수 있었다.⁽¹⁾ 동시에 그러한 서양의 물리력이 이번에는 조선으로 향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일반민들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 사이에 크게 번져 나갔다. 헌종대에 들면서 조선의 연해에는 이양선들이 수시로 출몰하여 통상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조선이 서양의 사정권 안에 들어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었다. 이처럼 서양세력의 위협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서양의 접근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한 논의대상으로 등장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대외세력에 대한 대응력의 확보가 당장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1) 閔斗基, 1986 「十九世紀 後半 朝鮮王朝의 對外危機意識」 『東方學志』52

외적 대응력의 확보를 위한 노력은 여러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주요한 흐름은 역시 서양의 기계기술을 비롯한 외부의 문물을 수용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수행되는 것은 1870년대 후반에 들어서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화정책으로 지칭되는 그러한 시도가 1870년대 후반에 갑자기 평면돌출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결코 아니다. 이는 멀게는 18세기 후반 북학론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대외문물 수용론과도 연계가 되며 좀 더 직접적으로는 제2차 중·영전쟁 이후 지식인들의 노력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개화정책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개항 이전 시기 지식인들의 사상적 동향을 살피는 작업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간 이러한 점에 착안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본고 역시 그러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필자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던 洋務運動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이해 문제이다. 외적 대응력의 확보라는 과제를 안게 된 조선 지식인들이 우선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였던 것은 조선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던 중국이었다. 조선에 있어서 중국은 서양세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 또 중국은 서양의 직접적인 침탈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서양세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는 조선이 대응방식을 정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주목된 것은 청의 양무운동이었다. 제2차 중·영전쟁 이후 중국은 ‘辛酉政變’으로 恭親王과 西太后 중심의 정권이 등장하여 서양에 대한 기존의 배척적인 태도에서 물러나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고 그러한 외교정책을 바탕으로 ‘洋務運動’을 추진하고 있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조선 지식인들은 청의 양무운동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관심이 개항 이후의 개화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870년대 후반 고종과 그 측근에 의해 추진되던 개화정책이 양무운동의 성격과 유사하다는 점은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다. 그런 점에서 개화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이전 조선 지식인들의 양무운동 내지 양무에 대한 이해태도를 살피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개항 이전 시기의 양무운동에 대한 이해

문제에 대해서는 몇 논문에서 단편적인 언급이 있었을 뿐 본격적인 연구는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본 논고가 그러한 연구성과에 크게 힘입은 것임은 물론이다.

1. 1860년대 초반의 청 정세 인식

조선에 서교의 확산과 서양의 존재가 본격적인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珍山事件과 黃嗣永帛書事件을 계기로 해서였다. 이들 두 사건으로 인해 서교는 극단적인 이단으로, 서양은 서교세력을 배후에서 후원하는 집단으로 깊이 각인되었다. 1840년 중국에서 발발한 제1차 중·영전쟁은 서양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크게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후 조선 정부의 관심은 서양세력의 국내 침투를 차단하는 데 모아졌으며 그 방어책은 국내의 서교세력을 소탕하고 서양과의 접촉 자체를 철저히 막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탄압책에도 불구하고 서교는 계속 확산되어 1860년대에 들어서자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었다. 서교도들이 京外에 퍼져 있고 촌이나 읍 전체가 신자인 곳도 있어 정부로서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기록은 1860년대 서교 전파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²⁾ 또 서양 이양선은 수시로 조선 연안을 배회하면서 통상을 요구함으로써 조선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주목되었던 것은 청의 정세였다. 서양세력의 침탈 하에 있는 청에서의 서양세력의 동향, 그에 대한 청의 대응방식은 조선이 서양세력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은 1860년대에 들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었다. 먼저 서양과의 관계에서는 제2차 중·영전쟁이 발발하였다. 1856년 애로우(Arrow)호 사건을 빌미로 중국을 침공해 ‘天津條約’을 체결했던 서양세력은 1860년에 천진조약의 비준서 교환 문제로 다시 중국을 공격하였다. 영·불연합군은 咸豐帝가 熱河로 피난하여 북경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1860년 10월 북경을 함락

(2) 洪翰周(1798~1868), 『智水拈筆』(아세아문화사 영인본), p.64

「憲宗己亥 邪獄又作 亦行鋤治 然京外至今 在在有之 或至全一村 通一邑爲之 殆不可勝誅 故反付勿問」

시켰으며 함풍제로부터 사태의 수습을 위임받고 북경에 남아 있던 恭親王이 연합군과 접촉한 후 北京條約을 체결하였다. 북경조약으로 청은 영국과 프랑스에 각각 800만 냥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외에 天津을 새로 개방하고 九龍반도 남단의 九龍司 지역 한 곳을 할양하였으며 조약체결을 중재했던 러시아에게도 우수리강 동쪽지역을 넘겨주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한편 1853년 남경을 점령하여 ‘天京’을 건설하고 북경을 향한 북벌과 함께 西征을 추진하여 내부에서 청조를 위협하였던 태평천국군은 1850년대 중반에 들면서 지도층의 권력투쟁으로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지만 1858년 말부터 점차 세력을 만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1860년 5월에는 청조의 강남대영을 격파하여 새로운 군사적 진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洪秀全의 조카인 洪仁玕과 군사 지도자들은 양자강 하류의 경제 중심지를 장악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착수하려 함으로써 오히려 청 정부를 압박하는 형세를 보이고 있었다.⁽³⁾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서 함풍제는 연합군이 철수한 뒤에도 북경에 돌아오지 않은 채 그대로 열하에 남아 있다가 1861년 7월 17일 그곳에서 사망하였으며 그를 이어 同治帝가 5살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동치제의 즉위를 계기로 열하로의 순행을 주장했던 肅順 일파와 북경에 남아 북경조약을 체결시켰던 공친왕 일파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발생하는 등 제2차 중·영전쟁의 파장이 정쟁으로 확대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대립은 결국 11월에 공친왕이 동치제의 생모인 西太后와 결탁하여 북경 함락 등의 책임을 물어 숙순 일파를 제거한 후 정권을 장악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⁴⁾

1861년 1월에 파견되었던 문안사행의 부사 朴珪壽(獻齋, 1807~1876)는 귀국에 앞서 올린 보고를 통해 안에서는 恭親王·桂良, 밖에서는 僧格林沁·曾國藩·勝保·袁甲三·駱秉章 등 능력을 갖춘 인물들이 정권을 주도하고 있지만 아첨배들이 정권을 농단하기 때문에 군사들의 사기가

(3) 金誠贊, 1989 「太平天國과 捻軍」 『講座中國史』V(지식산업사), pp.121~124 참조.

(4) 恭親王 및 西太后 정권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는 表教烈, 1985 「西太后政權의 成立過程에 대하여—辛酉政變의 再檢討—」 『東洋史學研究』21 참조.

저하되고 민심이 어지러운 등 안정을 찾고 있지 못하다고 청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⁵⁾ 서장관 申轍求가 귀국하여 올린 별단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王大臣들이 양이의 뇌물을 받은 데서부터 중·영전쟁의 불씨가 생겼으며 이들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황제의 북경탈출을 계획하였다고 파악하면서 청 조정 내에서 北狩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기된 사실, 함풍제 일행이 갑자기 열하로 巡行한 사실, 공친왕 등이 回鑾을 주청한 사실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 함풍제가 열하로 내려간 이후 계속되는 회련 요청에 의해 1861년 2월 13일 회련한다고 발표했다가 건강악화를 이유로 2월 25일로 미루고 다시 왕대신들의 간청에 의해 가을로 연기한 사실 등 중·영전쟁의 수습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던 청조 내부의 갈등관계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있다.⁽⁶⁾ 전체적으로 열하 순행을 주도했던 인물들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조선의 주된 관심은 역시 太平天國의 난을 비롯한 각종 민란 상황과 제2차 중·영전쟁의 추이에 있었다. 태평천국군과 서양세력은 언제든 조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⁷⁾ 그 가운데에도 특히 주목되었던 것은 賊匪의 형세였다.⁽⁸⁾ 적비는 이미 18세기 후반부터 청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었는데 태평천국의 난이 발생하면서 특히 주의 깊게 관찰되고 있었다. 부사 박규수는 賊匪들의 세력이 대단하여 관병으로도 어찌 할 수 없다고 민란 상황을 개관하면서 적비 가운데에도 張樂行의 捻軍과 태평천국군이 가장 심각한 근심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⁹⁾ 문안사행의 수역으로 연행했던 李閏益 역시 민란 상황

(5) 『龍湖閑錄』三, pp.7~10 「別使先來便錄紙」(1861.6). 당시 박규수의 대청인식에 대해서는 河政植, 1995 「太平天國과 1850~60年代初 朝鮮王朝의 危機意識」 『東方學志』87, pp.3~11 참조.

(6) 『日省錄』 哲宗 12년 6월 19일 「書狀官申轍求首譯李閏益進聞見別單」

(7) 『日省錄』 哲宗 12년 3월 27일 「召見還三使臣」

「錫愚曰…今之憂者 其說有二 洋夷既滿皇城 則或恐因勢東犯…曰南匪滋及近省 則或恐槍我西鄙」

(8) 제2차 중·영전쟁 직후 청조의 내란에 대한 사행사들의 관심에 대해서는 三好千春, 1990 「兩次アヘン戰爭と事大關係の動搖」 『朝鮮史研究會論文集』27, pp.55~57 이 참고된다.

(9) 『龍湖閑錄』三, pp.7~8 「別使先來便錄紙」

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南匪, 즉 태평천국군으로 인해 청의 국세가 크게 기울어진 데다가 각종 적비까지 가세함으로써 商路가 막히고 인심이 흉흉해지는 등 청이 더욱 열악한 상황에 빠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¹⁰⁾ 이 시기 연행사들의 별단에는 回匪·苗匪·捻匪·囑匪·教匪·土匪 등 실로 다양한 적비의 명칭이 등장하고 있다.

서양세력의 동향은 물론 제2차 중·영전쟁에 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제2차 중·영전쟁과 관련된 서양세력의 움직임에 대한 보고가 조선에 전달되었던 것은 1859년에 들어서였다. 서장관으로 연행했던 金直淵은 서양세력의 기세가 대단하여 양광총독 葉名琛이 붙잡히고 영국인들이 광둥성에 들어와 개시를 요구하고 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¹¹⁾ 葉名琛이 영·불연합군에 체포된 것이 1856년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조선의 정보파악은 상당히 늦은 편이었다. 김직연을 따라 연행하였던 역관 李尙迪 역시 민란으로 청이 어지럽고 영국이 천진에서 교역을 청한 사실과 함께 청의 식자들 사이에 청의 수명이 다했으며 청이 망한 원인은 천주교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전함으로써 위기의식을 자극하였다.⁽¹²⁾

제2차 중·영전쟁에 관한 구체적인 소식은 1860년 12월 金景遂의 수본을 통해 전해졌다. 김경수가 전한 내용은 연합군의 공격으로 북경이 함락되고 함풍제가 열하로 피난하였으며 서양국들이 조약을 통해 천주교를 마음대로 전파하고 각 해구에서 자유롭게 통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등 매우 급박한 것이었다.⁽¹³⁾ 1861년 3월에 귀국한 동지사행의 정사 申錫愚 역시 서양이 무력을 통해 강제로 조약을 체결하여 사교를 펴뜨리고 아편을 마음대로 교역하고 있어 천하의 형세가 어지럽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¹⁴⁾ 문안사행의 서

(10) 『日省錄』 哲宗 12년 6월 19일 「書狀官申轍求首譯李閏益進聞見別單」

(11) 『日省錄』 哲宗 10년 3월 20일 「書狀官金直淵首譯李尙迪進聞見別單」

(12) 『同文彙考』 補續, 「謝恩兼冬至行首譯李尙迪聞見事件」

(13) 閔斗基, 1986 「十九世紀 後半 朝鮮王朝의 對外危機意識」 『東方學志』52, pp.267~268

(14) 『日省錄』 哲宗 12년 3월 27일 「召見還三使臣」. 당시 申錫愚의 大청인식에 대해서는 河政植, 1995 「太平天國과 1850~60年代初 朝鮮王朝의 危機意識」 『東方學志』87, pp.23~28 참조.

장관 신철구와 같은 경우는 양이는 본래 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중국에 들어와 기강이 쇠퇴하고 법령이 어지러운 것을 목도한 후 조약을 빙자하여 중국에 압력을 가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⁵⁾ 서양세력의 중국 침략이 적비의 활동이나 정치적 부패와 같은 청 내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던 것이다.

태평천국군을 비롯한 각종 민란과 제2차 중·영전쟁에 따른 서양세력의 침탈로 곤란을 겪고 있는 청의 상황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후일 박규수에 의해 東津僉使에 발탁되는 李鍾元과 같은 인물은 함풍제가 주색에 빠져 정사를 만주인들에게 일임한 데다가 각지에서 도적이 봉기하고 서학이 치성하는 등 청의 형세가 마치 썩은 새끼줄을 가지고 말을 모는 것과 같이 위태롭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⁶⁾ 金允植(雲養, 1835~1922)의 경우 1861년 문안사행의 부사로 여행하는 박규수에게 서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청이 쇠약해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한편 문안사행의 파견으로 후일 청이 환도하게 되면 조선의 신의에 더욱 후하게 대할 것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¹⁷⁾ 청의 상황이 추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을만큼 급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서 오는 인식의 혼란이 엿보인다.

청의 상황에 대한 인식은 1861년 후반에 들어 함풍제의 사망과 동치제의 즉위, 북경으로의 환궁, ‘辛酉政變’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됨으로써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어 갔다. 동치제의 즉위 사실은 1861년 9월 함경도 관찰사의

(15) 『日省錄』 哲宗 12년 6월 19일 「書狀官申轍求首譯李閔益進聞見別單」

「初非有占取土地之意 欲索還所賂之銀 及入皇城 見天子北狩 紀綱日頹 法令不一 憑藉和約條件 待中國人 無所忌憚 任意毆打 莫敢誰何」

(16) 『題報紀英』, 「李鍾元序」(1864.3)

「皇帝沈湎于酒色 置國事於弁髮 盜賊蜂起 天下分裂 江而南陸沈者 殆近廿稔 且邪學熾興 洋夷猝入 天子北狩 社稷陵夷凜凜乎 若朽索之馭六驥矣」. 『題報紀英』은 1858년 부사로 여행했던 金永爵이 청의 京報와 奏稿를 구입해 와 이종원에게 주자 이종원이 그 가운데 참고가 될만한 것을 추려 편집한 것이다. 그런데 본서 가운데에는 김영작의 귀국 이후 시기의 것도 포함되어 있어 이종원이 다른 경로를 통해 얻은 자료를 추가했음을 알 수 있다. 본 자료는 서울대 국사학과 대학원 延甲洙 氏의 도움으로 참고할 수 있었기에 지면을 통해 사의를 표한다.

(17) 『雲養續集』 권2, 「奉送職齋朴先生珪壽赴熱河序」

狀啓를 통해 알려졌다.⁽¹⁸⁾ 의주 부윤은 함풍제의 형 鄭親王이 국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 났을 때 양이를 잘못 끌어들여 화를 자초하였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으며 그에 반해 恭親王은 많은 신망을 받고 있어 오래지 않아 추대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돈다고 청의 분위기를 전하였다.⁽¹⁹⁾ 이어 1861년 10월에는 재자관 편에 청에서 공친왕 중심 세력이 怡親王·鄭親王·肅順 등을 국정을 어지럽힌 죄로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는 소식이 전달되었다.⁽²⁰⁾ 동치제 즉위 및 환궁, ‘신유정변’ 사실이 전해지면서 청의 상황에 대한 위기감은 약간 진정되기도 하였다.⁽²¹⁾ 순행파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이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순행파를 제거하고 등장한 새로운 정권에 막연한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청은 여전히 위급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청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던 것은 주로 태평천국군의 활동 소식이었다. 제2차 중·영전쟁의 발발과 그에 따른 북경 함락이 조선 지식인들에게 준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지만 공친왕과 서태후의 집권 이후 서양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현상적으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원으로서의 서양에 대한 불안감은 제2차 중·영전쟁 발발 초기에 비해 상당히 희석된 감이 있다. 영·불연합군이 청과 함께 태평천국군의 토벌작전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는 서양인들이 중국과 마음을 다하여 和好하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²²⁾ 프랑스 장군 프로트가 토벌과정에서 전사했다는 소식까지 전달되었으므로 서양인들의 의도에 큰 의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양의 침탈은 주로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1864년의 것으로 생각되는

(18) 『龍湖閑錄』三, p.28 「北伯狀啓抄」

(19) 『龍湖閑錄』三, pp.28~29 「灣尹書」

「所謂咸豐之兄正親王秉執國權 莫敢誰何 殘忍誤國 當初江南賊起之時 正親王 招洋夷入授 以致其禍 若明末李自誠之招入金人樣子 以此之故 朝野歸怨於正親王 而所謂恭親王 凡百事爲 近於聖人 故朝野係望 非久當有推戴之舉云耳」

(20) 『龍湖閑錄』三, pp.38~39 「憲書齋咨官手本抄」(1861)

(21) 『題報紀英』, 「李鍾元序」

「未幾月 嗣皇紹統于京師 梓宮奉還于先陵 轉危爲安 撥亂反正 余心深疑之」

(22) 『日省錄』哲宗 13년 7월 2일 「書狀官奇慶鉉首譯吳膺賢進聞見別單」

보고는 양이가 기교한 물건을 은으로 바꾸어가기 때문에 은이 고갈되어 백관에게 봉록을 줄 때 종이에 그냥 써서 주는 형편이라고 전하면서 서양과의 교역으로 인한 중국 은화의 일방적인 유출문제를 지적하고 있다.⁽²³⁾

그에 반해 태평천국군의 위협 수준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1862년의 사행은 태평천국군의 기세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태평천국군의 소요가 심하여 절강이 함락되고 소주·항주·안휘·영파 등지에도 남비가 진을 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쪽에서 오는 조운선이나 상선이 움직이지 못해 관료들의 녹봉이 지급되지 못하고 곡가가 등귀하는 등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⁴⁾ 1863년의 보고 내용 역시 유사하다. 서장관 李寅命은 태평천국군이 각 성에 산재해 수시로 성을 공격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수역 李尙迪은 僧格林沁·曾國藩·左宗棠 등 뛰어난 인물이 많이 있지만 태평천국군의 진압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운을 어찌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돈다고 청의 상황을 전하였다.⁽²⁵⁾

사행사들이 파악하고 있던 정보의 수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제2차 중·영전쟁 이후 중국의 상황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1860년대 전반 조선의 청 정세에 대한 이해 문제에서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청에서 나타나고 있던 변화의 중요한 한 측면인 양무운동에 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양무운동은 공친왕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었다. 議政王으로 總理各國事務衙門의 설립을 주도하고 그곳의 대신에 취임한 공친왕은 外患을 제거할 수 있는 근본책은 自強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²⁶⁾ 양무운동을 추진하기 시

(23) 『龍湖閒錄』三, p.300 「中原洋夷以物易銀之弊」

(24) 『日省錄』哲宗 13년 3월 29일 「書狀官閔達鏞首譯李 進聞見別單」

(25) 『日省錄』哲宗 14년 6월 17일 「書狀官李寅命首譯李尙迪進聞見別單」

(26) 『籌辦夷務始末』(咸豐朝) 권72, p.11

「竊臣等酌議大局章程六條 其要在於審敵防邊 以弭後患 然治其標而未探其源也 探源之策 在於自強 自強之術 必先練兵 現在撫議雖成 而國威未振 亟宜力圖振興 使該夷順則可以相安 逆則可以有備 以期經久無患 況髮捻等尤宜迅圖勦辦 內患除則外侮自泯」

작하였다. 공친왕의 양무책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견제를 받았던 반면 曾國藩·李鴻章·左宗棠 등 지방관료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증국번이 1861년 ‘安慶內軍械所’를, 이홍장이 1862에 ‘上海洋砲局’을 설립하는 등 양무운동은 사실상 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²⁷⁾ 초기 양무운동의 일차적인 목표는 태평천국을 비롯한 민란을 서양식 무기의 힘을 빌어 효과적으로 진압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 그러한 바탕에는 ‘心腹之害’가 되고 있는 민란을 진압한 후에야 러시아나 영국 등의 대외세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놓여 있었다.⁽²⁸⁾ 1863년에 들자 이홍장이 ‘蘇州洋砲局’·‘江南製造局’을 세우고, 증국번이 서양 기계제도의 도입계획을 추진하는 등⁽²⁹⁾ 양무운동은 좀더 활성화되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청 내의 분위기와는 달리 1860년대 전반 사행사의 보고에 청에서 추진되고 있던 양무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의문을 자아낸다. 앞서 인용했던 『題報紀英』에는 1862~1863년 사이의 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도 양무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양무운동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양무운동에 대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켰기 때문인지는 선뜻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이 시기에 양무운동에 대해 특별히 반감을 가질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쪽이 아닐까 짐작이 된다. 조선 사행사들은 주로 태평천국군 등 각종 민란과 서양세력의 동향 파악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무운동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양무운동이 지방 관료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는 점도 양무운동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행사의 활동반경은 북경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남 지방에서 전개되고 있던 양무운동의 내용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이다.

(27) 양무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朴赫淳, 1989 「洋務運動의 性格」 『講座中國史』 V (지식산업사) 참조.

(28) 『籌辦夷務始末』(咸豐朝) 권71, p.17

(29) 容闕 著·權熙哲 譯, 1974 『西學東漸記』 (을유문고), pp.137~151

2. 1860년대 중·후반의 양무 이해

1) 1860년대 중반 청 정세 인식의 변화와 양무

청은 1860년대에 들면서 태평천국군을 비롯한 각종 민란과 서양세력의 침탈로 인해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런데 대략 1864년을 전후하여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청이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아 가고 있다는 평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종원은 1864년에 쓴 『제보기영』의 서문에서 청의 京報와 奏稿를 통해 청조의 기강이 무너지지 않고 경륜을 갖춘 자들이 조정에서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조가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³⁰⁾ 청조가 안정되고 있다는 현재적 인식이 정보와 주고 등을 청조 안정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자료로 해석하게 하였던 것이다. 청의 정세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는 청조의 북경 환궁, 서양과의 관계 안정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청의 민란, 특히 태평천국의 난이 진압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태평천국군은 1850년대 말부터 세력을 재결집하여 반격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曾國藩 등 지방 紳士層의 거센 도전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그간 태평천국과 청조 사이에서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던 서양세력이 1861년 11월 함풍제 사후 집권한 서태후와 공친왕 정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처음에는 근대적인 무기를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중국 정부를 지원하던 영국, 프랑스 등이 1862년부터는 직접 태평천국군의 진압에 나섰다. 그에 따라 태평천국군의 상황은 더욱 불

(30) 『題報紀英』, 「李鍾元序」

「及讀是書 典章法度之猶能遵守 風俗教化之猶有餘存 有以經綸才譔 紀在廊廟 有以言義諫諍 顯於臺省 有以奇謀異能 用於藩鎮 有以親上死長 桿於患難 皆抱衛國之誠 庇民之志 貞幹事之材 發而不可禦之勇 久而不可回之力 得有以搆將傾之廈 緘既沾之鼎 遂基盤泰鞏固之業 此豈非數百年之深思厚澤 猶有可以固結人心培養人材者耶」

리해졌다. 常勝軍과 이홍장에 의해 새로 조직된 淮軍은 1862년부터 태평천국군에 타격을 가하기 시작하여 1863년에 들어 江蘇 동부와 浙江 북부지역을 탈환하였으며 12월에는 경제, 행정 중심지인 蘇州 탈환전에서도 대승을 거두었다. 이로써 사실상 태평천국은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1864년 7월 19일 천경이 함락되면서 몰락하였다.⁽³¹⁾

청이 태평천국군을 비롯한 민란을 제압하고 있다는 내용이 조선에 알려지는 것은 1864년에 들어서였다. 정사 趙然昌은 1864년 3월 9일의 복명에서 소주와 항주의 태평천국군이 토평되었다고 전하면서 남경에 있는 태평천국군 역시 오래지 않아 진압될 것이라 예견하였고⁽³²⁾ 그의 예견대로 태평천국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멸망하였다. 태평천국의 난이 완전히 진압되었다는 사실은 청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이후의 보고에서 청의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65년 수역 朴適性이 올린 별단에는 태평천국군 토평 후 청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박유성은 남비가 토평됨으로써 막혔던 도로가 개통되자 商貨가 모이고 군량이 많이 필요치 않아 재정적인 여유가 생겼으며 또 서양세력의 태도가 공순해져 두려워하는 뜻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서양이 끼치는 가장 심각한 피해로 논의되던 아편에 대해서도 아편에 세금을 부과하고 아편의 재배를 허락하자 아편가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서양이 이익을 많이 잃고 있어 아편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였다.⁽³³⁾ 청이 민란을 진압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찾게 되고 그러한 안정을 바탕으로 서양세력까지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민란을 진압한 서태후와 공친왕 중심의 정권에 대한 평가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鄭親王 등 이른바 ‘순행파’에 대해 지니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청의 내정이 서태후와 공친왕을 중심으로 개편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부터 조선은 신정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기대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평가는 유보적인 상태였다. 그런데 태평

(31) 金誠贊, 1989 「太平天國과 捻軍」 『講座中國史』V, pp.124~140

(32) 『日省錄』 高宗 1년 3월 9일 「召見回還上副使濟州牧師梁憲洙于熙政堂」

(33) 『日省錄』 高宗 2년 2월 6일 「書狀官鄭顯德首譯朴適性進聞見別單」

천국의 난이 진압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정권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인 색채를 띠게 된다. 서장관 尹顯岐는 1864년 3월에 올린 별단에서 태평천국군이 진압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황태후와 의정왕 등이 무리없이 정국을 운영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³⁴⁾ 박유성은 鄭親王·怡親王·肅順의 三奸臣이 처벌된 후 조정이 清明해지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하여 공친왕과 서태후 중심의 정치 개편을 긍정적으로 이해하였다. 서장관 鄭顯德의 평가는 보다 적극적이어서 청에서 앞으로 ‘中興之治’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1865년 2월에 올린 별단에서 청의 분위기를 전하였다.⁽³⁵⁾ 또 같은해 4월 수역 卞光韻은 태평천국군의 진압 사실을 설명하면서 동태후와 서태후가 내정을, 恭親王이 외정을 각각 주관하는데 조세를 감면해주는 등 선정을 베풀며 ‘中興之業’에 힘쓰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³⁶⁾

1860년대 중반 사행사들의 보고에 청조의 중흥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음은 흥미롭다. ‘중흥’에 대한 의식은 본래 청에서 민란을 진압하고 왕조의 안정을 회복했다는 점에 기인해 생겨난 것이었다. 태평천국군의 반란으로 동요를 보이고 있던 청은 제2차 중·영전쟁으로 북경이 함락되자 당시의 상황을 ‘變局’으로 파악하는 심각한 위기인식이 나타나고 있었다. 공친왕과 서태후 중심의 정권이 새로운 외교관계를 표방하면서 양무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던 것도 ‘變局’이라는 위기국면에 대한 대응이라는 성격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1860년대 중반 이후 태평천국과 捻軍 등 주요한 민란이 진압되고 또 서양과의 관계도 크게 호전됨에 따라 당대인들 사이에 대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는 의식과 더불어 전통적 가치와 세계관의 재흥이 나타나고 있다. 대략 1860년대 말부터 뚜렷하게 나타나는 중흥의식은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變局’ 의식을 대체 또는 약화시킴으로써 보수

(34) 『日省錄』高宗 1년 3월 28일 「書狀官尹顯岐首譯李閔益進聞見別單」

(35) 『日省錄』高宗 2년 2월 6일 「書狀官鄭顯德首譯朴適性進聞見別單」

(36) 『日省錄』高宗 2년 4월 8일 「首譯卞光韻進聞見別單」. 三好千春은 조공 중심국으로서 중국의 대응과는 다른 공친왕의 정치에 조선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三好千春, 1994 「大院君政權の中國認識」 『史艸』35, pp.197~199) 이러한 인식은 1870년대 초반에 들어서 나타나며 1860년대 후반까지는 공친왕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적 주장을 강화시키고 1870년대에 가서는 서양과의 대결을 요구하는 ‘淸議’의 등장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³⁷⁾

1860년대 중반 조선 사신들의 문건류에 나타나는 중흥이라는 표현 역시 당시 청에서 발흥되고 있던 중흥의식과 관련되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조선에서 중흥의식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 즉 ‘청의’와 연관되는 보수성까지 이해하고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조선에서 중흥의식은 공친왕과 서태후 중심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민란이 진압되고 서양과의 관계도 안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진정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던 청의 상황에 대한 표현이다. 때문에 청에서 일반적으로 그랬던 것과는 달리 조선에서는 중흥의식이 양무활동에 대한 비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양무운동이 공친왕 세력의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으로 인해 청조 중흥의 한 징표로 이해될 가능성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³⁸⁾

조선에 양무와 관련된 사실이 처음 알려지는 것은 1866년 奏請使 일행을 통해서였다. 당시 주청사는 1866년에 南鍾三·洪鳳周 등의 천주교인과 함께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한 사건에 대한 보복조치로 프랑스가 조선을 침공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청에 사건의 진상을 해명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었다.⁽³⁹⁾ 이들은 여행기간 동안 陳玉章·李日乾·張丙炎·王軒·吳懋林·劉培芬·萬青黎 등 청측의 여러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서양에 대한 대응방식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다.⁽⁴⁰⁾ 그 과정에서 부분적이지만 양무운동에 관한 내용

(37) 1860년대 중반 청조의 중흥의식에 대해서는 崔熙在, 1985 「1874~5年 海防·陸防論議의 性格」 『東洋史學研究』22, pp.89~95 참조.

(38) 청에서도 중흥의식이 양무추진에 비판적인 보수주의자들에게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서 양무론자들 가운데에도 변국적 상황임을 근거로 양무추진의 확대를 적극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중흥이 양무활동의 한 결과임을 강조하는 예가 나타난다고 한다(崔熙在, 1989 「中華帝國秩序의 動搖」 『講座中國史』V, pp.218~219).

(39) 『承政院日記』 高宗 3년 7월 8일

(40) 청인들과의 필담 내용은 『洋擾記錄』, 『禦洋隨錄』 등의 자료에 실려 있다. 필담 기록은 지금까지 吳慶錫의 외교활동 기록으로 간주되어 이용되어 왔던 것인데 이것이 오류임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延甲洙, 1997 「병인양요 이후 수도권 방비의 강화」 『서울학연구』8, p.62 註28). 자료에 따르면 주청사 일행이 프랑스 선교사 살해 사실을 밝힐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열렸던 것은 적어도 6월 19일 이전인데 오경석이 재자관으로 출발한 것은 8월 12일이었으며, 또 자신은 단지 경지를 구경하기 위해 따라온 사람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을 접할 수 있었는데 양무론에 대해 언급했던 인물은 진옥장이다. 그는 서양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기계제도를 수용해야 하며 조선은 일본을 통해 서양의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일본은 서양의 기술을 상당히 터득한 데다 서양과 불편한 관계에 있으므로 조선이 청하기만 한다면 자신들이 습득한 기술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함께 진옥장은 최근 청에서도 역시 서양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 남방에서만 겨우 기계를 만들고 있는 수준이며 북방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하여 중국 내에서 전개되고 있던 양무운동의 상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다.⁽⁴¹⁾ 그에 반하여 다른 중국 인사들은 대부분 조선이 서양의 火輪船에는 대적할 수 없으므로 水戰을 삼가하고 대신 산성 중심의 방어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다. 조선이 지구전술을 쓴다면 군량 등 여러 가지 사정상 먼거리에서 원정해 온 서양세력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이다. 사행사들이 접촉한 청인들 가운데에 이일건·유배분·오무림 등은 강남지방의 인사들이었으므로 양무운동이 추진되고 있던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들에게서는 양무에 대한 언급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당시 필담의 초점이 프랑스 함대가 소문대로 조선에 출병하게 될 경우 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지구전을 통해 조선이 만약 10년 정도 시간을 끈다면 自強할 수 있을 것이라 한 예부상서 萬靑黎의 언급에서 나타나듯⁽⁴²⁾ 지구전은 당장의 위협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양무운동은 오랜 추진기간을 요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는 있어도 당장 프랑스 함대의 조선 출병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조선의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당시 청인들과 주도적으로 접촉하면서 정보를 수집

필담을 나누었던 인물은 延甲洙 氏의 지적대로 柳厚祚의 伴尙으로 수행했던 沈裕慶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1) 『赤虎記』, p.164 (아세아문화사 영인 『雲下見聞錄』 所收)

「朝鮮與倭 隣講好久矣 何不問計於倭人 倭人盡學洋之器械 雖與洋條約通商 倭人深恨洋 可以求得 其器械耳 中國人亦能做得其器械 而精巧尙不如洋 惟南邊人造成 而只在巧匠之模得 北方但知其糟粕耳」

(42) 『禦洋隨錄』, 「萬尙書抵右合短札」

했던 沈裕慶이 대원군에게 별도로 올린 보고문에는 양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조선에서 군사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였던 것도 수전을 벌이지 말고 지구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대다수 청인들의 견해였다.⁽⁴³⁾ 반면 청이나 일본에서 양무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나 조선 역시 양무책을 써야 한다는 장육장의 권고는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⁴⁴⁾

조선에 양무운동에 관한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는 것은 1866년 10월에 파견되었던 서장관 嚴世永(凡齋, 1831~1899)을 통해서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엄세영은 후일 紳士遊覽團의 朝士로 일본에 파견되는 인물로⁽⁴⁵⁾ 그가 보고한 내용은 天文算學館의 설치에 관한 것이었다. 천문산학관은 거인, 진사, 한림 및 5품 이하의 관리를 대상으로 하여 서양의 근대적인 자연과학을 교습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⁴⁶⁾ 1866년 11월 공친왕의 발의로 설치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되었는데 그 기본 골격은 12월에 다시 올린 문건에 정리되어 있다. 거기에서 공친왕은 서양이나 일본이 기계제도를 날로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만이 구습에 젖어있다고 지적하면서 운선과 기계 등의 제조법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서양인들을 초빙하여 기계제조 기술의 기본이 되는 度數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中法을 버리고 西法을 쫓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서법은 본래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기 때문에 서법을 배운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⁴⁷⁾ 이는 17세기 서양의 천문, 역학의 수용 논리로 제시된 바 있으며 18세기 후반에는 조선에서도 원용되는 이른바 '중국 원류설'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⁴⁸⁾ 천문산학관 설치문제가 제기되자

(43) 延甲洙, 1997 「병인양요 이후 수도권 방비의 강화」 『서울학연구』8, pp.61~64 참조.

(44) 병인양요 당시 양무적 禦洋論을 견지하였던 金允植이 서양기술의 수용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당시 청이나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던 양무운동이 아닌 1840년대에 편집된 『海國圖志』의 「籌海篇」에서 찾고 있던 사실에서도(『雲養集』 권11, 「洋擾時答某人書」) 당시 양무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살필 수 있다.

(45) 紳士遊覽團에 대해서는 鄭玉子, 1965 「紳士遊覽團考」 『歷史學報』27 참조.

(46) 『洋務運動文獻彙編』二, pp.22~28

(47) 『洋務運動文獻彙編』二, pp.23~25

(48) '중국 원류설'에 대해서는 박권수, 1966 「徐命膺의 易學的 天文觀」(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및 拙稿, 1997 「조선 후기의 서학유입과 서기수용론」 『震檀學報』83 참조.

그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張盛藻는 서양 기술을 가르치려면 관리가 아닌 공장들을 뽑아 가르치면 될 것이라 하여 천문산학관의 설치를 반대하였고,⁽⁴⁹⁾ 倭仁과 같은 인물은 夷人을 쫓아 말단의 기예를 배우는 것은 불가하며 그렇게 될 경우 나라 전체가 西教에 감염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⁵⁰⁾ 이러한 비판에 대해 공친왕은 서양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實’을 추구해야 하며 그 주체는 당연히 사대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다시 반대파들의 비난이 가해지는 등 양측간의 대립은 팽팽하였다.⁽⁵¹⁾ 논란 끝에 천문산학관의 설립이 추진되었는데 천문산학관의 설치 는 청조 내에서 서양문물의 수입을 둘러싼 최초의 논쟁을 촉발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⁵²⁾

엄세영은 총리각국사무아문에서 동문관을 설치하고 과거 합격자들을 따로 모아 서양인들에게 위탁하여 기계제도의 학습법 등을 가르치도록 청한 사실, 감찰어사 張盛藻 등이 그러한 정책에 반대한 사실, 결국 조정에서 다시 논의하여 천문과 산수는 본래 유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며 또 서양인들에게 배우는 것은 西法을 빌려 中法을 인증하는 것으로 聖道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여 총리아문에서 일을 총관하도록 결정하였다는 사실 등을 차례대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恭親王이라는 사실 역시 보고되었다.⁽⁵³⁾ 내용이 상당히 축약되어 있기는 하지만 천문산학관의 설치과정을 비교적 요령있게 전달하고 있다. 엄세영 일행이 연행했던 때는 천문산학관의 설립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 전개되던 시기였으므로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엄세영의 별단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가 관련 문서를 접하였던 사실도 짐작할 수 있다.⁽⁵⁴⁾

(49) 『洋務運動文獻彙編』二, p.28

(50) 『洋務運動文獻彙編』二, p.30

(51) 『洋務運動文獻彙編』二, pp.31~33

(52) 朴赫淳, 1989 「洋務運動의 性格」 『講座中國史』V, pp.192~193

(53) 『日省錄』 高宗 4년 4월 6일 「書狀官嚴世永首下光韻進聞見別單」

(54) 이는 엄세영의 별단 가운데 ‘輪船機器諸法 藉西人爲先導 殺講明機巧’ ‘士習人心大有關係’ ‘不過借西法印證中法’ 등의 표현이 관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또 엄세영과 함께 연행했던 부사 李世器도 관에 머물면서 제반 상황을 탐문하여 정보를 얻었다고 하면서 공친왕의 奏文을 본 사실을 밝히고 있다.(『羅巖隨錄』, p.3 「副使札」)

엄세영은 천문산학관의 설치 경위만을 소개하였을 뿐이어서 정작 그가 천문산학관의 설치에 대해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당시 청의 정국 운영 주체를 공친왕을 비롯한 寶鏞·汪元·중국번·이홍장·좌종당·駱秉章 등 주로 양무파로 파악하고 그들의 정치운영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공친왕이 설립을 주도한 천문산학관에 대해 적어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진옥장과의 필담에서도 나타나듯 양무운동과 관련된 정보 가운데에는 일본이 서양의 기계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과는 공식적인 외교통로가 폐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에 관한 정보는 대개 청이나 혹은 대마도를 통한 간접적인 것이었다. 1867년 3월 청이 보내온 정보 가운데에는 근래 일본에서 개혁을 단행하고 무비를 갖추었으며 학생을 영국의 학교에 파견하여 문자를 배우게 한다는 것과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자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⁵⁵⁾ 1867년 3월 부사李世器는 귀국에 앞서 올린 서찰에서 恭親王 상소문을 인용하여 왜인들이 영준한 젊은이들을 서양의 中學에 보내 조선이나 천문에 관한 지식을 배워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⁵⁶⁾ 또 같은 해 10월에는 대마도주가 서한을 보내 일본은 舊制를 모두 없애고 모든 법도를 일신하였으며 현재의 급무는 해외에서 포가 달린 전함과 무기를 구입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군사를 강화하는 밑천으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하여⁽⁵⁷⁾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 정부는 적어도 1867년 경에는 청이나 일본 모두에서 서양의 기계기술을 학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엄세영과 같은 경우에는 ‘중흥’으로 대표되는 청조의 상황에 대한 낙관적 인식이 양무운동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결합될 수 있는 여지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여지는 병인양요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론화된 주전론으로 인해

(55) 『羅巖隨錄』, pp.1~2 「照錄新聞紙五條」

(56) 『羅巖隨錄』, p.3 「副使札」

(57) 『高宗實錄』 권4, 高宗 4년 10월 1일

그 이상 확대될 수는 없었다.

2) 병인양요 이후 主戰論의 강화와 비판적 양무 이해

1866년의 병인양요는 조선의 조야에 큰 충격을 던진 사건이었다. 프랑스가 자국의 선교사 살해 사건을 문제 삼아 조선을 공격하려 한다는 북경의 자문이 도착했을 때부터 북경에서 일어난 일이 조선에서도 일어날 것이라 하여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었는데⁽⁵⁸⁾ 그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났다. 병인양요가 발발하자 일반 민들 사이에서는 도성이 장차 함락될 것이라든가 혹은 나라에 장차 도성을 저버리고 떠나는 거조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등 상당히 동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⁵⁹⁾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에 상륙하자 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당장 급박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병인양요 당시 李恒老(華西, 1792~1868)가 올린 상소문에는 프랑스의 침입에 대한 대응방식을 놓고 교전론과 주화론으로 국론이 갈라져 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⁶⁰⁾ 李裕元(橘山, 1814~1888)은 병인양요가 일어나 강화도가 함락되었을 때 조정에서부터 여항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화론을 주장하였지만 홍선대원군이 척화를 관철시켰다고 하여⁽⁶¹⁾ 당시의 분위기는 오히려 주화론이 대세를 점하고 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유원이 홍선대원군과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주화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는 그의 지적에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정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서양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金澤榮의 설명이 당시의 상황에 가장 접근한 것으로 판단된다.⁽⁶²⁾ 당

(58) 『龍湖間錄』四, p.20 「奇正鎮上言」

「咨文以後 臣固知朝廷處分 極其嚴正 而里港至愚 妄相告語 以爲北京已行之事 將不免復在吾東矣」

(59) 『承政院日記』高宗 3년 9월 27일

(60) 『日省錄』高宗 3년 9월 12일

(61) 『林下筆記』권28, 「關異端」

(62) 『金澤榮全集』貳, 「秋琴子傳」

「今上三年 法蘭西人以我不許通商 以兵艦侵江華 既而敗去 當是時國家習於自守 上下之間 舉不知外國情形 或言西洋人不足畏 秋琴子以爲深憂」(朱昇澤, 1991 「姜瑋의 開化思想과 外交活動」 『韓國文化』12, p.135 註26에서 재인용)

시의 상황과 이후의 전개과정을 놓고 볼 때 대응방식은 主戰論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 主和論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주화론과 관련된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아 당시 제기되었던 주화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피기는 어렵다. 다만 전후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주화론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범주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서양세력의 군사력에 정면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승산이 없는 비현실적인 방법이므로 화호를 맺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태도이다. 이는 소극적 의미의 주화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병인양요 당시 중국과 일본이 견딜 수 없던 예로 보아 조선 역시 화의를 맺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던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⁶³⁾ 조정에서 주화론을 주장하였던 인물들이 근거로 들고 있던 것 역시 대부분 그러한 논리였다.

주화론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또 하나는 통상론적 주화론이다. 통상론은 18세기 후반 朴齊家 등 북학론자들에 의해 제기된 이래 19세기에 들어서 李圭景·崔漢綺 등에 의해 계승되면서 논의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통상금지정책을 강력히 시행한 데다가 제1차 중·영전쟁 이후 서양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면서 1840년대 이후에는 거의 전면에서 드러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통상금지책에도 불구하고 서양물품의 교역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었다. 서양물품의 교역은 주로 사료상에 ‘唐船’으로 표현되는 중국선박과의 밀무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東萊를 통해 유통되는 것 또한 적지 않았다.⁽⁶⁴⁾ 밀무역은 선박과 선박의 물품을 통채로 바꾸다가 적발되는 등⁽⁶⁵⁾ 그 규모가 크고 대담하였으며 밀무역을 감시해야 할 지방관이 단속을 빌미로 밀무역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까지 발생하는 형편이었다.⁽⁶⁶⁾ 당시 서양물품의 유통 상황은 洋貨가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

(63) 尹素英, 1995 『轉換期の朝鮮の對外認識と對外政策—朴珪壽を中心に』(お茶の水女子大學 大學院 人間文化研究科 박사학위 논문), pp.73~74

(64) 『高宗實錄』 권3, 高宗 3년 10월 20일

(65) 『日省錄』 高宗 1년 6월 8일 「命時囚申吉輔等議處」

(66) 『日省錄』 高宗 1년 5월 8일 「黃海監司洪淳穆以椒島僉使許雲老罪狀馳啓」

이나,⁽⁶⁷⁾ 의복·기용이 청나라 것이 아니면 서양 것이라는⁽⁶⁸⁾ 짐작할 수 있다. 양화의 확산에 따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강도가 높아져 서양 물품을 교역하다 적발되는 자를 효수하는 방안이 고려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 海防도 잠상행위의 금지방안과 관련되어 논의되는 측면이 강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⁶⁹⁾ 그러나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양물품의 유입은 줄어들지 않았다. 서양물품의 교역에 상당한 이익이 보장되는 한 서양물품의 유통이 근절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19세기에 들면서 세도가문의 무역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던 것을 생각하면⁽⁷⁰⁾ 서양물품의 교역과정에도 이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고종 초반 서울의 고관 가운데 프랑스 선박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베르뇌 주교의 서한을 프랑스와의 통상 추진 세력이 조정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자료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는⁽⁷¹⁾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비록 통상론자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상인세력 및 그들과 연계된 세도가문 그리고 여전히 통상론을 고수하고 있던 최한기와 같은 경우는 통상을 바탕으로 한 주화에 동조하였던 부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주화와 주전을 둘러싼 논의는 이유원의 지적처럼 병인양요를 고비로 하여 점차 주전론으로 방향을 잡아가게 되었다.⁽⁷²⁾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은 이항로이다. 이항로는 1866년 9월 8일 동부승지에 제수되자 국가에 일이 있으면 당연히 임해야 한다는 평소의 출사관대로 조정에 나가

(67) 『高宗實錄』 권3, 高宗 3년 7월 30일

(68) 『龍湖閒錄』三, 「正言李晚蒼上疏」, p.11
「而今也中外之恬侈成俗 服玩器用 非唐則洋」

(69) 『承政院日記』 高宗 1년 8월 10일

「大王大妃傳于李世器曰 海防之禁 重於陸地者 以其舟楫之行 無所不到 此往彼來 踪跡難尋也 此所以犯越之爲極律 而今乃潛輸禁物 互相射利 爛漫交通 慣熟來往 此與下海招寇 相去幾何」

(70) 金廷美, 1996 「朝鮮後期 對清貿易의 전개와 貿易收稅制의 시행」 『韓國史論』36 (서울대 국사학과), pp.210~211

(71) 延甲洙, 1997 「대원군집권기 대외인식과 국방정책」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제9회 학술토론회 발표문, p.113

(72) 병인양요 이후 척사론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鄭玉子, 1995 「19세기 斥邪論의 歷史的 位相」 『韓國學報』78, pp.155~165 및 吳瑛燮, 1996 『華西學派의 保守的 民族主義 研究—그들의 衛正斥邪論과 義兵運動을 中心으로—』 (한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pp.60~65 참조.

12일 주전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문에서 그는 싸워서 지키는 ‘戰守策’만이 국가를 보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이항로의 상소를 계기로 이튿날에는 청의 예부상서 萬靑黎 앞으로 조선에는 통교할 만한 물품이 없으며 서양물품은 이용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치품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역을 허락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신이 전달되었다.⁽⁷³⁾ 이어 14일에 흥선대원군은 중국이 강화한 이후 양인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거로 들면서 화친의 주장을 매국행위, 통상의 주장을 망국행위로 규정하는 척화 4조목을 묘당에 알리는 조치를 취하였다.⁽⁷⁴⁾ 11월 4일에는 청 예부에 앞으로 곤욕을 더 받게 되더라도 프랑스에 대해 배상을 할 수 없으며 통상과 전교 역시 허락할 수 없다는 조선의 공식적 입장을 담은 자문을 전달하였다.⁽⁷⁵⁾ 이러한 일련의 조치 속에서 주화론은 사실상 그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병인양요 이후 국론으로 자리를 잡게된 주전론은 서양의 물리력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점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을 잘 보여주는 인물은 1866년 9월에 상소를 올려 주전론을 개진하였던 전 헌남 朴周雲이다. 박주운은 서양의 무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단정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이 서양에 굴복한 것은 중국의 방어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지 결코 서양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다. 즉, 서양의 용병술은 평원이나 강해에서의 싸움에 강한 면모를 발휘하는데 중국의 지형은 들이 넓고 천연적인 험지가 적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자신들의 강점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의 경우는 중국과는 달리 삼면이 높은 산맥으로 겹겹이 쌓여 있고 산골짜기는 밭을 일구기에 적당하여 식량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보루와 벽을 깊숙히 쌓고 대비하기만 한다면 병갑이나 기계의 예리함은 문제될 것이 없어 서양의 침입은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다고 본다.⁽⁷⁶⁾

(73) 『龍湖閒錄』四, pp.154~157 「李興敏書」

(74) 『龍湖閒錄』四, pp.44~45 「自雲峴書送政府堂上坐起處輪示錄紙」

(75) 『日省錄』高宗 3년 11월 4일 「命洋船事實回咨撰出下送于使行所到處」

(76) 『承政院日記』高宗 3년 9월 3일

金永爵(邵亭, 1802~1868)은 연행과정에서 僧格林沁⁽⁷⁷⁾이 서양군을 격퇴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들면서 서양의 무력이 그리 강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북경이 서양의 수중에 떨어진 것은 중국이 서양보다 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열화로 순행하여 민심이 이반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⁷⁸⁾ 이는 병인양요기에 주전론과 주화론이 대립되고 주전론 가운데에도 서울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서울을 벗어나서 항전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중심의 방어론을 지지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전론자들은 서양의 침략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었다. 奇正鎭(蘆沙, 1798~1876)은 병인양요가 발발하기 전인 1866년 8월 16일 올린 상소에서 프랑스가 금년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물러간다 하더라도 조만간 군사를 동원하여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예견하였다.⁽⁷⁹⁾ 閔胄顯은 다음해 봄에 물이 불기를 기다려 프랑스군이 대대적으로 침략에 들어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하였다.⁽⁸⁰⁾ 이처럼 서양의 재침입이 가능성있는 일로 예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가 주전론자들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주전론자들이 구상하였던 방어체제는 전통적인 방어술에 근거한 것이었다. 서양 세력의 침입경로는 해상이었으므로 일차 저지선은 선박이 정박 가능한 주요 연안지역으로 상정되었다. 서양과의 대결에서 방어선을 최대한 內河 쪽에 설치하는 방식은 魏源이 『海國圖志』에서 제시하였던 해양방어 지침이기도 하다.⁽⁸¹⁾ 그러나 이 역시 전통적인 수전을 통해서서 서양의 함대를 막아낼 수 없던 데서 나온 교육지책으로 새로운 개념의 전술은 아니었

(77) 僧格林沁은 몽고족 출신 장군으로 태평천국군의 진압에 큰 공을 세우고 1859년에는 大沽戰에서 영국군을 격퇴하여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다. 때문에 병인양요 당시 조선에서 주전론이 비등할 때 그의 주전 상소가 널리 인용되는 등 승격임심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1860년대 후반에 들어 恭親王이 화의론자였다는 점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조선은 1860년까지만 해도 강렬한 주전론자였던 승격임심이 1861년에 이미 주화론으로 돌아선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78) 『承政院日記』 高宗 3년 9월 12일

(79) 『承政院日記』 高宗 3년 8월 16일

(80) 『承政院日記』 高宗 3년 12월 17일

(81) 金容九, 1995 『世界外交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p.231

다. 일단 내지로 들어온 적은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산성을 거점으로 방어하게 된다. 방어체제의 정비 과정에서 무비의 근대화 문제는 크게 주목되지 않았다. 海防은 방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박주운이 제시하였던 해방책은 강의 흐름이 얕아서 건너다닐 수 있는 곳에 마름쇠를 설치한다는 것이 전부였으며 그는 이런 방법으로도 서양배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었다.⁽⁸²⁾ 산성방어 체제 역시 험한 지형을 이용하여 산성을 구축한다는 것이 요점이었을 뿐 신무기의 구비와 같은 점은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

병인양요 이후 주전론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양무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모습을 띠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1866년 12월 의주부윤李建弼이 사행원 가운데 包蔘別將과 통관 등을 따로 불러 수합한 정보에는 이홍장이 洋學과 洋徒를 따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저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⁸³⁾ 이홍장은 1865년의 경우만 해도 서양의 기계체도를 수용해 부강의 방도로 삼아야 한다며 機器廠의 설립을 주장하는 등 양무론자로서 뚜렷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활동상은 일절 배제한 채 서학을 저지하는 모습만 부각시키고 있던 데서 양무론 내지 양무파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양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공친왕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친왕이 1860년대 중반에 청의 정치개혁을 주도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또 그가 추진하고 있던 양무운동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은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1860년대 중반에 자주 보이던 공친왕에 대한 언급이 1868년경에 들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 공친왕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 변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1870년대에 들면서 공친왕에 대한 평가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

(82) 『承政院日記』 高宗 3년 9월 3일

(83) 『羅巖隨錄』, p.33 「灣尹李建弼上雲宮書」

「總督李鴻章 智略過人 一自總督江南之後 出令曰 在前以我國服色 爲洋人之隨從者 固當一從殺無赦 而令前也 姑恕之 從今以後 若我國服色 學洋學從洋徒 則盡殲乃已 以此嚴立科律云 此是剪其羽翼 絕其奸細之大策也 上國有人矣 於我國何憂哉」

로 나타난다. 1871년 4월 신미양요 당시 대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고종은 서양인들이 중국인들과 강화할 수 있는 이유를 묻고 있는데 그에 대해 姜滂(豹雲, 1809~1887)는 공친왕이 서양인들을 비호하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모두 서양인들을 축출하고자 하지만 공친왕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⁸⁴⁾ 趙基應의 경우는 청 예부를 통해 전달된 미국의 통상요구자문을 예부에서 극구 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친왕이 주선해 移咨했다고 하면서 공친왕을 金과 臣事朝貢의 굴욕적인 화의를 성립시켰던 남송의 秦檜와 비유하여 비난하고 있다.⁽⁸⁵⁾

고종의 공친왕에 대한 인식은 강노나 조기응의 설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1872년 사행사들을 소견한 자리에서 고종은 양이의 침범이 공친왕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질문하면서 공친왕이 황제의 숙부로서 양이를 금하지 않고 오히려 통화하여 백성들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을 가하였다. 고종의 질문에 대해 서장관 朴鳳彬 역시 공친왕이 뇌물을 받아 서양세력을 비호하고 있으며 섭정 이후 재주와 덕망이 있는 자들이 모두 몰려나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다고 대답하여 공친왕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⁸⁶⁾ 섭정 이후 재주와 덕망있는 인사들이 몰려났다는 것이 양무파 세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공친왕이 섭정을 하고 있지만 신료들과 상의하여 정치를 행하기 때문에 ‘中興之治’를 볼 수 있을 것이라던 이전의 평가와 선명하게 대비된다.⁽⁸⁷⁾ 공친왕을 중심으로 한 집단은 서양세력과 결탁하여 서양의 조선 진출을 돕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던 것이다.⁽⁸⁸⁾

(84) 『承政院日記』 高宗 8년 4월 17일

(85) 『承政院日記』 高宗 8년 4월 20일. 공친왕이 예부로 하여금 미국의 통상 요구서를 전달해 주도록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친왕은 통리기무아문을 통해 서한을 전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거절하는 등 미국과 조선의 통상관계 수립에 호의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籌辦夷務始末』(同治條) 권80, pp.12~13) 조기응의 지적이 적절한 것은 아니다.

(86) 『承政院日記』 高宗 9년 4월 4일

(87) 『日省錄』 高宗 11년 3월 30일 「召見回還冬至使于重熙堂」

(88) 공친왕에 대한 고종의 비판에는 섭정에 대한 불만이라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安外順, 1994 「大院君執政期 高宗의 對外認識」 『東洋古典研究』3, pp.584~585 참조.

1860년대 후반 이후에 보이는 공친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同治 말년에 들어 청에서 형성되고 있던 ‘淸議’적 분위기와 관련되는 면이 적지 않다. 청의는 권위에 과감히 도전한다던가 현실적 정치참여를 중시하고 外治보다 內治를 강조하는 등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양에 대한 강경한 대결을 요구한다는 점이다.⁽⁸⁹⁾ 이러한 성격의 청의가 동치 말년에 갑자기 활발해진 것은 1870년 영국과의 조약개정교섭이 실패로 돌아간 후 영국을 비롯한 서양 열강의 이익추구가 보다 적극적이 된 데다가 ‘天津教案’이 발생하여 서양에 대한 반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의가 서양과의 외교정책을 주도하고 있던 총리각국통상사무아문, 나아가 양무파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됨은 당연하다.

강로나 박봉빈 등의 공친왕 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은 당시 청에서 발흥되고 있던 청의적 분위기를 적지 않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양무파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태도를 단순히 청의 분위기가 투영된 것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청의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1870년대 초반 청 내부의 주도적인 흐름은 여전히 양무론이었기 때문이다. 양무파 세력은 공친왕의 강력한 후원자로 神機營을 창설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文祥이 1866년 이래 이부상서를 역임하고 양무파 관료 이홍장이 1870년 直隸總督兼北洋大臣에 부임하면서 내정·외교·군사의 실권을 장악하는 등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⁹⁰⁾ 공친왕 중심의 양무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서태후가 청의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은⁽⁹¹⁾ 당시 중국 내 양무파의 비중을 짐작케 한다. 양무파에 비해 청의를 주장하고 나선 淸流派는 힘의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공친왕 세력에 대한 조선의 부정적인 평가를 단순히 청의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89) ‘淸議’의 성격에 대해서는 閔斗基, 1985 「戊戌改革運動과 淸流派·洋務派의 關係」 『中國近代改革運動의 研究』 (일조각), pp.111~124 참조.

(90) 당시 청 내부에서의 양무파의 위치에 대해서는 苗長靑, 1993 『晚淸官僚派別派系研究』 (遼寧大學出版部) 제6장 「洋務, 頑固兩派官僚集團의 唇槍舌箭」 참조.

(91) 崔熙在, 1985 「1874~5年 海防·陸防論議의 性格」 『東洋史學研究』22, pp.94~95

결국 청의 상황은 조선인의 시각으로 재단되었던 것이며 따라서 중요한 것은 조선측의 인식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수준에서 서양의 물리력을 제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한 서양기술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무의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한 일이다. 공친왕이 세양세력과 밀착되어 있다는 사행사들의 보고는 양무의 추진과정에서 서양과의 접촉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다분하였다. 서양과의 접촉이 서교의 침투와 통상압력의 가중으로 이어질 것은 이전부터 예상해 온 수순으로 조선 정부에서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었다. 그런 점에서 청의론은 흥선대원군 집정하의 조선 정부의 입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강하였으며 이로 인해 결국 청의와 양무라는 사상적 조류 가운데 청의론적 입장을 반영하게 되었던 것이다.

3. 1870년대 전반 양무에 대한 관심의 확산

1) 禦洋策 비판과 양무에 대한 관심

병인양요 이후 강화되기 시작한 주전론에 입각한 쇄국책은 1870년대에 들어서도 변하지 않았다. 1871년 신미양요가 일어나자 곡물가가 매일 급등하는 등 민간의 동요가 병인양요 때보다 더욱 심하다고 이야기되는 상황이었지만⁽⁹²⁾ 집권층의 서양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은 병인양요기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신미양요 당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우의정 洪淳穆(汾溪, 1816~1884)은 서양세력은 해상 활동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조선과 같이 산세가 험하고 이미 계엄을 갖춘 곳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판중추부사 강노역시 서양은 수전에만 능할뿐 육전에는 약하기 때문에 중국에서와는 달리 조선에서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 하여 미국선의 침입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⁹³⁾ 결국 고종은 근본을 다스리면 무비의 많고

(92) 李晩燾, 『響山日記』

「洋擾大起 比丙寅爲甚 官軍得捷旋敗 人心危懼…」

(93) 『承政院日記』 高宗 8년 4월 17일

적음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통상을 절대 허락할 수 없으며 만일 화친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매국의 죄로 처형할 것이라 하여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에서 대응방식식을 정리하였다.

1870년대 초반 양무는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며 공친왕과 결부되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일각에서는 청의 양무운동에 관한 관심이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1872년 12월 연행에서 돌아와 복명한 자리에서 박규수는 서양인들이 이전에는 포의 판매나 화륜선의 운임수입 등을 통해 많은 이익을 보았지만 이제는 중국이 그 제조기술을 배워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이익을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체류비용도 제대로 대지 못해 점차 물러가는 추세라고 고종에게 설명하였다.⁽⁹⁴⁾ 양무운동의 성과에 대한 최초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1873년 8월 서장관 閔泳穆(泉食, 1826~1884)이 올린 별단에도 중국인들이 여러 가지 제조기술을 익힌 까닭에 상당한 이익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 역시 양무운동의 성과에 대한 언급이 보이고 있다. 민영목은 인망을 받고 있는 청측의 인사로 공친왕을 비롯하여 左宗棠·沈桂芬·李鴻章·文祥·李鴻藻 등을 들고 있는데⁽⁹⁵⁾ 이홍조를 제외한 대부분이 양무파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들이어서 양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뒷받침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1873년 8월에 귀국한 정사 李根弼의 복명 가운데에도 양무운동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강남 지방의 상인들이 화륜선을 제조해 사용하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이익을 잃고 있다는 것으로⁽⁹⁶⁾ 박규수나 민영목의 보고와 동일한 내용이다. 박규수나 민영목 등의 보고 내용은 공친왕 중심의 양무파 세력이 인망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추진하고 있던 양무운동은 서양세력의 축출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정리

(94) 『日省錄』 高宗 9년 12월 26일 「召見回還別使于慈慶殿」

「向於江南用兵時 中國多買洋砲 用於戰陣 而洋人以造砲得利 近日則中國倣造洋砲 極爲便利 不買彼砲 洋人又爲失利 向來則中國商買 費用火輪船 故洋夷以此得利矣 今則中國亦倣造火輪船 而不復買彼 又失利…彼夷 以通商交易之計 到處多建房屋 所費甚多 金既事事不利 則房屋所費 亦無充償之道 見今事情 漸有捲歸退去之勢云」

(95) 『日省錄』 高宗 10년 4월 9일 「書狀官閔泳穆首譯尹夏楨進聞見別單」

(96) 『承政院日記』 高宗 10년 8월 13일

될 수 있다.

1870년대 초반 사행사들의 보고가 청에서 전개되고 있던 양무운동의 현황을 반영한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양무운동의 실제적인 상황과는 거리감이 없지 않다. 사실 1870년대 초반의 양무운동은 그리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한 상태였다. 이홍장과 좌종당에 의해 각각 창설되었던 江南製造局과 福州船政局은 1860년대 양무운동의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곳에서 제조된 선박은 대부분 소형 목선에 불과했기 때문에 1872년에 가서는 북주선정국의 운영을 중지하자는 건의가 나오고 있었다. 또 서양의 연안 항해권과 상업권 독점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李鴻章의 주도로 1872년 상해에 설립되었던 輪船招商局도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처음 반년 만에 2만 5천 냥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형편이었다.⁽⁹⁷⁾ 1870년에 들어 양무파에 비판적인 청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던 데에는 이처럼 양무운동의 성과가 부진했던 점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청조 내에서 양무파의 영향력은 여전히 컸지만 양무운동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청류파의 공격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던 시기에 양무운동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던 박규수나 민영목의 태도는 주목된다. 박규수나 민영목의 태도는 이들보다 조금 앞서기는 하지만 비슷한 분위기의 시기에 연행했던 강로나 박봉빈이 공친왕 세력을 정권을 농단하고 서양을 비호하는 집단으로 매도했던 것과 대비되어 흥미를 끈다. 이는 조선 내부에 양무운동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였던 것을 보여주며 이후 양무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인식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870년대 초반 양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흥선대원군에 의해 추진되고 있던 禦洋策에 대한 불만과 관련이 있다. 그 불만은 주로 기존의 어양책이 무비의 근대화와 같은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여 서양세력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 있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흥선대원군 집정기

(97) 崔熙在, 1985 「1874~5년 海防·陸防論議의 性格」 『東洋史學研究』22 및 朴赫淳, 1989 「洋務運動의 性格」 『講座中國史』V 참조.

의 국방정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병인양요를 통해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흥선대원군은 이후 국방력의 강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대원군은 군비투자를 위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砲軍의 수를 증원하는 등 군사적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중요한 정책을 수행하였다. 흥선대원군 집정기에 추진되었던 일련의 국방력 강화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만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흥선대원군의 국방 강화책이 무비의 근대화라는 점에는 충분한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흥선대원군이 무비의 근대화에 관심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병인양요 직후 김윤식은 무기의 정예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魏源의 주장에 공감하여 『海國圖志』의 내용에 따라 총포 등을 제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⁹⁸⁾ 흥선대원군 집정기에 국방 실무를 담당하였던 申櫛(威堂, 1811~1884) 역시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였다.⁽⁹⁹⁾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견해에 공감하였던 듯 『海國圖志』·『瀛園志略』·『演礮圖說』·『則克錄』 등과 같은 서적을 내주어 연구하게 하고 중국에서 직접 화기를 구입해 오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였다.⁽¹⁰⁰⁾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이거나 체계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은 아니다. 『해국도지』를 참고하여 戰船과 水雷砲·磨盤車 등과 같은 새로운 무기를 제작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일회적인 성과에 그치고 말았다. 또 동래부에서 일본이 소유한 소총 제작기술을 모방, 제작해 시험해보면서도 무기를 교역하자는 일본의 제의에 대해서는 昇平한 시기에 무비를 교역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여 거절하는 이중적인 자세가 나타난다.⁽¹⁰¹⁾ 신헌이 무비서인 『戎書撮要』를 편집하는 데 참고하도록 저자에게 내

(98) 金允植, 『雲養集』 권11, 「洋擾時答某人書」

「故嘗見魏源籌海篇 以爲不務兵多而惟求礮精 此蓋屢經洋擾 得其要領之言也 今宜廣求良工及有巧思之人 製造大礮滑車絞架及扛銃擡礮水雷車等之類 按圖倣造 無不成之理」

(99) 『承政院日記』 高宗 4년 1월 16일

(100) 흥선대원군 집정기의 무기개발과 서구과학기술 도입에 대해서는 朴星來, 1980 「大院君시대의 科學技術」 『한국과학사학회지』제2권 제1호 및 延甲洙, 1997 「병인양요 이후 수도권 방비의 강화」 『서울학연구』8, pp.89~95 참조.

(101) 『龍湖間錄』四, pp.174~175 「講信大差倭問答」

어 준 병서를 보더라도 『해국도지』를 제외하면 『武經總要』가 1044년, 『登壇必究』가 1599년, 『虎鈴經』이 송대의 것으로 전통적인 방어술에 무게를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⁰²⁾

비록 흥선대원군 집정기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존의 양이책이 실제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대한 지식인의 불만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洪祐獻은 그런 지식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홍우헌은 조정에서 목소리를 높여 斥夷를 외치며 主戰을 주장할뿐 대외세력을 제압할만한 실제적인 방책은 강구하지 않는다고 정부의 어양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때문에 홍우헌은 장인 成彝鎬가 마침 1872년에 정사 박규수를 수행하여 부사로 연행하게 되자 동행하여 중국의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최신 무비관련 서적을 직접 구입해 돌아왔다. 홍우헌의 무비서적 구입과정에는 물론 박규수 역시 깊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홍우헌이 최신 무비서적을 구입한 사실은 조정에도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조정에서는 그에게 관직을 제수하고자 하였지만 끝내 거절하였다고 한다.⁽¹⁰³⁾ 대원군 집정 하에서는 자신의 국방론이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李建昌(明美堂, 1852~1898) 또한 조정에서 戰守만 주장하지 실제로 전수의 요령은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무비의 근대화가 수반되지 않은 당시의 국방정책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였다.⁽¹⁰⁴⁾ 후술하겠지만 1874년 연행 당시 이견창의 활동 역시 조선의 어양책

「正官倭曰 晚近宇內紛擾 武備不可不念 而兩國之貿易物品 雖有規法 從今銃砲刀劍等物 與他諸品 通其有無 互相求貿云云 前導曰 晚近宇內 有此紛擾之事 交隣交易 自有已例 則當此昇平之時 敢以武備 遽請通貿 事甚乖當 順付書契中所謂公貿物品 即不過公米木也 一自萊府赴訴之後 宿弊已革 入給無滯 君价出來 大違格例 斯速還歸

(102) 『戎書撮要』의 성격에 대해서는 朴贊殖, 1988 「申櫨의 國防論」 『歷史學報』117 pp.75~76 참조.

(103) 『明美堂集』 권20, 「漪嵐洪君墓碣銘」

「漪嵐嘗隨其外舅入燕 與燕中賢豪游 得新刊武備書以來 當是時 朝廷尙斥夷主戰守 然率多大言 無實事可以禦不虞者 漪嵐有心人其求書來 豈徒然哉 當時 乃欲以此顯用漪嵐則 漪嵐固不屑之矣」

(104) 『明美堂集』 권16, 「明美堂詩文集敘傳」

「初朝廷斥倭洋主戰守 然實不得其要領 建昌以爲憂嘗曰 中國者 外國之樞也 如入中國 而善之 則可以知外國之情」

에 대한 보완방법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이 있었다.

대원군 집정기의 어양책에 대한 불만은 조선의 대외정책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인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즉 조선도 무조건 서양을 배척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서양 국가들과 수교를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경석은 신미양요 당시 흥선대원군에게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⁵⁾ 박규수 역시 1871년 미국이 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요구하였을 때 조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과 수교를 체결해 고립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¹⁰⁶⁾ 물론 이러한 주장이 ‘양이’라는 원칙 자체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양이’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론을 강구할 것에 대한 요구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오경석이 외교관계 수립을 건의했다가 흥선대원군에게 배척받았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듯 흥선대원군 집정 하에서는 전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어양책이 실제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회의하던 지식인들에게 중국을 통한 대외 정보의 획득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었다. 외부의 충격을 일차적으로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중국의 완충력이 약화된 데다가 자체의 대응력마저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서양과 중국의 관계 변화에 따른 파장은 그대로 조선에 전달될 것이기 때문이다.⁽¹⁰⁷⁾ 중국 내 서양세력의 동향과 서양세력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식은 조선이 대외관계와 대응태도를 설정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견창의 표현대로 중국은 대외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창구였다. 대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지식인들의 노력은 앞서 본 홍우현이나 중국에서 발생한 잡지를 비롯해 외국 관련서의 사본을 많이 구입해 갔다는 조선인들의 경우에서 발견된다.⁽¹⁰⁸⁾ 중국의 상황을 주목했던 지식인들은 양

(105) 金河元, 1993 「초기 개화파의 대외 인식」 『釜大史學』17, p.476

(106) 미국과의 외교관계 체결에 대한 박규수의 입장에 대해서는 孫炯富, 1997 「朴珪壽의 對美開國論」 『朴珪壽의 開化思想研究』 (일조각) 참조.

(107) 鄭基雨(雲齋, 1832~1890), 『雲齋遺稿』 권2, 「送族姪蓉山尙書健朝赴燕序」(1873) 「比聞 中國之形 異於曩時 江統防微之論 不見施行 鄴善都護之請 反得內屬 海氛翳日 訛言警隣 境外之事 雖未可詳 其在輔車唇齒之勢 安得無經遠之慮哉」

이를 위한 방법론의 하나로 양무운동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박규수나 민영목에게서처럼 양무운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그에 대한 관심은 보다 확산될 수 있었다.

2) 1873~4년의 使行과 양무 이해

1872년 박규수나 민영목의 보고를 기점으로 양무운동에 대한 조선의 관심은 확산되어 가는 양상을 띤다. 이러한 상황은 1873년 사은겸동지사의 경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당시 사행의 정사는 鄭健朝(蓉山, 1823~?)였으며, 정건조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姜瑋(秋琴, 1820~1884)가 정건조의 권유로 동행하였다.⁽¹⁰⁹⁾ 이들은 여행기간 동안 청의 여러 인사들을 만나 국제정세와 청의 상황 등에 대해 필담을 나누었는데 예부상서 萬靑黎 및 형부주사 張世準과의 필담기록이 남아 있어 당시 조선 지식인의 관심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된다.⁽¹¹⁰⁾

만청려는 1797년생으로 정건조가 만났을 당시 나이는 68세였는데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병부상서를 역임하고 이후에는 예부상서를 맡는 등 청 정계에서도 비중이 있던 인물이었다. 예부상서에 오른 이후로는 직책상 조선과 청 정부 사이의 접촉창구 역할을 하면서 조선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는 1866년에는 여행 중에 있던 정사 柳厚祚에게 서신을 보

(108) 「At any rate we know that some of the Koreans in this city last year purchased many copies of all the books about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monthly magazine published in this city to carry back with them.」 (이는 1874년 3월 30일 북경 주재 미국영사의 보고문으로 尹素英의 앞 논문, p.190에서 재인용하였다.)

(109) 강위는 서울에 올라와 정건조의 집에 머물며 그와 함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 李光麟, 1979 「姜瑋의 人物과 思想」 『韓國開化思想研究』 (일조각), p.7

(110) 정건조가 중국에서 필담한 내용은 『北植談艸』(정문연)에 정리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 『姜瑋全集』에도 「北游談艸」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북유담초」에는 萬靑黎와의 필담 내용이 빠져 있어 차이가 있다. 『北游談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朱昇澤, 1991 「姜瑋의 開化思想과 外交活動」(『韓國文化』 12)에서 언급된 바 있으며 尹素英의 논문에도 대만사건 이전의 대일인식을 분석하는 데 『북유담초』를 인용하고 있다. 다만 尹素英의 논문에서는 강위를 필담의 주체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강위가 필담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북유담초』에 蓉山問이라 하여 정건조가 질문하였다는 표시가 있고, 『북사담초』에도 정사의 기록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내 서양과의 무력 대결을 가급적 피하고 지구전을 피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이러한 권고는 이후 조선의 국방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정건조가 만청려를 만나 필담을 나눈 것은 1874년 2월 2일이었는데 일본이나 서양 등 대외세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당시 필담의 주요한 주제였다. 만청려는 흥선대원군의 척사정책으로 인해 서양이 조선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던 데서 나타나듯 기본적으로 청의론적 입장을 지니고 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조선의 가장 큰 근심은 왜와 러시아라고 설명하였는데 특히 서양화한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만청려의 견해에 대해 정건조는 일본이 정령을 크게 바꾸었다고는 하지만 어찌 동호국을 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정건조는 일본이 舊制를 변경하고 洋法을 모방한 것은 서양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일본국민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이는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이기도 하였다.⁽¹¹¹⁾ 정건조가 가장 우려하였던 것은 서양세력의 침탈 가능성이었다. 그는 양인들이 통상과 행교를 빙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선을 침략하려는 계책을 품고 있다고 하여 서양의 침탈 가능성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¹¹²⁾ 만청려와의 필담 내용은 러시아가 조선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그다지 새로운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정건조가 형주부사 장세준과 처음 대면한 것은 만청려를 만나기 약 한 달전인 1월 9일이었다. 장세준에 대해서는 1826년생으로 1874년 필담 당시의 나이가 49세였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인적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그 스스로 조선 사신들과 10 여 년 동안 교유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밝

(111) 1873년에 정사로 연행했던 李根弼은 중국에서 일본에 내란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전하면서 倭主가 서양세력을 끌어들이어 關白을 제거한 후 모든 정권을 잡고 있지만 이는 먼 산위에 혼자 앉아 호랑이를 부르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承政院日記』 高宗 10년 8월 13일)

(112) 19세기 중반 이래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는 서양세력의 침략목적은 두고 두가지 견해로 나뉘어 있었다. 그 하나는 서양세력의 침략목적이 通商과 行教에 있다는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통상과 행교는 겉에 내세우는 핑계일뿐 실제로는 침략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서양에 대한 대응태도의 결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므로 자세한 고찰이 필요한 문제이다.

하고 있던 데서 볼 수 있듯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 그리 낮설지 않은 인물이었다. 실제로 정건조 역시 장세준이 策論에 능하다는 이야기를 조선에서 듣고 있었으며 장세준을 방문한 이유도 그러한 점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¹¹³⁾ 장세준을 방문한 정건조는 서양의 정세 및 중국의 상황, 조선의 대처 방안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필담을 나누었는데 장세준의 설명은 만청려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장세준은 만청려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양무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장세준은 중국이나 조선이 무력으로 서양과 대적해서는 승산이 없다 하여 주전론 자체를 비판하고 있던 데서 다른 인물들과 차이를 보인다. 서양에 굴복하는 것이 나라를 욕되게 하는 것이지만 뒤에 닥쳐올 화를 생각하지도 않고 전쟁을 벌이는 일이 더 나라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1866년 유후조 일행에게 서양에 대한 방어책을 권고했던 청측 인사들에게서 잘 나타나듯이 그간 조선 사신들이 접했던 청인들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대부분 주전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장세준이 전하는 청의 상황 및 서양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상이하였다. 장세준은 청이 이전에는 외부 정세에 밝지 못해 전면적인 주전책을 써왔는데 그 때문에 큰 화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비로소 잘못을 깨닫고 근래에는 화친책을 쓰게 되었다고 청의 대외정책이 전환된 사실을 전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대외정책의 수정으로 서양과 통교를 단행하였지만 우려와는 달리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화륜선·화륜거·전기·철도 등의利器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장세준은 서양의 의도는 다른 나라와 통상관계를 체결하는 데에 있을 뿐 토지와 인민을 차지하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¹¹⁴⁾

(113) 『姜瑋全集』下, 「北游談草」, p.799

「張世準…工書善詩 兼長策論 曾耳其名 因訪阮亭宅 遂至其第 余往者四 來謝者二」

(114) 『姜瑋全集』下, pp.828~829

「然自是之後 彼此相安 既通遠貨 亦資異聞 各勉輯睦 無相侵亂 瘡痍甫起 此難復集 生意物采 粗復舊關 是又朝議毋戰之效也 此與前代 引入蕃胡 以致亂華 其事不侔 此第所謂睹今天下大勢與前迥異者也 夷之技巧 類皆前古之所未聞 如輪舟車之

장세준에게서 서양에 대한 위기의식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서양인들이 중국을 흠모하고 있다고 하여 중화의식을 드러내는가 하면 서양에 대해 갖고 있는 좋지 않은 감정을 풀고 서로 친교하여 아무 일이 없는 단계를 최고의 수준으로 상정하는⁽¹¹⁵⁾ 다소 낭만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중국이 서양과 강화한 이후 여러 가지 면에서 곤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그간의 인식이었으며 주전론의 주요한 배경이었음을 생각해 본다면⁽¹¹⁶⁾ 서양과의 통교가 오히려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내용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장세준은 조선의 급무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自強을 도모하는 일임을 강조하였다. 자강의 내용이 양무운동과 관련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화륜선과 화륜거를 제조하고, 서양의 언어와 문자를 학습하며 서양의 신문 가운데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 공간하여 서양의 사정을 알리는 것 등이 그 중요한 내용이다. 그는 조선에서도 총명한 젊은이를 청에 파견하여 北學케 하고 서양 각국의 정형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삼도록 권고하였다.⁽¹¹⁷⁾ 1860년대 전반 청에서 추진했던 초보적 수준의 양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건조는 장세준의 권고에 대해 조선에서는 서양과 전쟁을 하고서야 그만둘 태세라 하여 별 가망이 없는 것으로 대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건조 일행은 연행과정에서 당시 청 사상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두 가지 경향, 즉 청의론과 양무론을 모두 접하였던 셈이다. 그런데 당시 정건조 일행은 그 가운데 장세준의 견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만청려 및 장세준과의 교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단적으로 드러난다. 조선 사행이 만청려와 교류한 것은 2월 2일 만난 이후 10일에 있는 작별연에 참가했던 것이 전부인 반면 장세준과는 첫 대면 이

運駛 電機寄信之神捷 鐵路土路之便利 火槍火礮之精良 夷不自秘 樂以示人 至爲設廠製造 以資貿遷 是則夷之願欲 不在於土地人民 而專以開通異域爲念 此又我人之所不料也」

(115) 『姜瑋全集』下, pp.833~835

(116) 홍선대원군의 척화론이 주장했던 가장 주요한 근거는 중국이 강화한 이후 양인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龍湖閒錄』四, 「自雲峴書送政府堂上坐起處輪示錄紙」)

(117) 『姜瑋全集』下, 「北游談草」, pp.830~833

후 수시로 왕래하면서 교류하고 있던 것이다.⁽¹¹⁸⁾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정건조나 강위가 장세준의 정세분석과 새로운 대응방식에 공감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강위는 장세준의 견해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듯 수시로 접촉을 갖고 있었다. 강위의 『北游談草』에 장세준과의 필담 내용만 실려 있고 만청려와 필담 사실은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도 그와 관련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정건조 일행은 장세준의 견해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 후의 북명이나 별단에서 장세준과의 필담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정건조는 오히려 중국이 제2차 중·영전쟁 이후 통상과 留館을 허락하는 등 무마책만을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¹¹⁹⁾ 정건조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조선의 배외정책을 상당히 염두에 둔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장세준과의 필담에서 조선에는 주전론만 있기 때문에 화친하자는 이야기를 잘못했다가는 화를 입게 될 것이라 했던 데서 나타나듯이 정건조는 화의와 관련된 내용을 정부 내에서 발설하는 자

(118) 참고로 장세준과의 교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류일자	교 류 내 용
1874. 1. 9	정건조와 강위가 함께 방문하여 필담을 나눔
1874. 1.12	장세준이 방문하여 정건조와 필담을 나눔
1874. 1.13	정건조와 강위가 함께 방문하여 필담을 나눔
1874. 1.14	강위가 정건조의 서신을 가지고 방문 필담을 나눔 후 글을 받아들음
1874. 1.15	정건조가 서신과 土物을 보냄
1874. 1.18	강위가 방문하여 글을 받아들음
1874. 1.22	정건조와 강위가 함께 방문
1874. 1.24	정건조가 글을 보내자 장세준이 답서를 보냄
1874. 1.26	정건조와 장세준이 시로 화답함
1874. 1.28	강위가 방문하여 종이, 부채 등을 선물함
1874. 1.29	강위와 李世炳이 함께 방문
1874. 2. 1	강위가 李世炳이 함께 방문
1874. 2. 3	정건조가 서장관 李鎬翼과 함께 방문
1874. 2.12	강위가 방문하여 작별인사 나눔

* 전거 : 『姜瑋全集』下, 『北游日記』

(119) 『日省錄』 高宗 11년 3월 30일

「健朝曰…自庚申敗衄之後 許以通商留館 專事撫摩 至有此引見之事 其事勢可知而聞甚駭然矣」

체에 대해 상당한 위험 부담을 느끼고 있던 것이다. 정건조가 연행한 일자는 1873년 10월 24일이었다. 흥선대원군이 崔益鉉의 탄핵을 받은 것이 25일이므로 바로 전날 출발하였던 것이며 따라서 그는 연행 도중에 흥선대원군에 대한 탄핵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건조는 대원군이 하야했다고 해서 대외정책 자체가 수정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며 장세준과의 필답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도 그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정건조는 장세준의 견해에 실제 불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불만은 양무의 필요성에 대한 장세준이 설명이 주로 ‘富’의 측면에 치중되어 있던 점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초기의 양무운동은 청 내부의 민란 진압을 위한 목적으로 인해 주로 군사공업의 육성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었다. 그런데 대략 187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양무운동의 주된 관심은 점차 ‘富’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옮겨져 가고 있었다. 이는 1872~3년間に 걸쳐 일어났던 回民의 반란이 진압되면서 전반적으로 민중운동이 침체의 국면을 맞고 있어 군사공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¹²⁰⁾ 1872년 輪船招商局의 설립은 양무운동의 성격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 할 수 있다. 장세준이 주로 ‘富’의 관점에서 양무론을 개진하였던 것도 1870년대 양무운동의 성격변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조선의 관심은 철저히 서양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물리력의 확보라는 ‘強’의 측면에 두어져 있었다. 두 차례의 양요를 겪음으로써 서양에 대한 위기 인식이 증폭되어 있는 터에 통상관계의 체결을 전제로 하는 ‘富’의 추구는 선뜻 수용하기 힘든 것이었다. 정건조가 별단에서 토로한 불만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정건조 일행은 장세준에게 들은 자강책에 관한 내용을 전혀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양무책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없었다. 그렇지만 지식인들 사이에 양무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데 정건조 일행이 끼친 영향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건조 일행은 중국에서 다양한 서양

(120) 양무운동의 성격변화에 대해서는 王紹坊 著·韓仁熙 譯, 1996 『中國外交史』 (지영사), pp.181~183 참조.

관련서적을 구입해왔던 것으로 추측된다.⁽¹²¹⁾ 또 정건조나 강위는 만청려나 정건조와의 필담을 각기 정리하여 주변인들에게 보임으로써 지식인들 사이에 양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평소에 서양 및 중국의 동향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던李建昌과 같은 경우 강위가 보여준 장세준과의 필담 내용이 조선의 국론에 크게 배치된다는 사실에 저르기 놀라면서도 상당한 관심을 표하던 것을 볼 수 있다.⁽¹²²⁾ 때문에 1874년 동지겸 사은사행의 서장관으로 여행하게 되자 이견장은 자신이 직접 장세준을 만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1874년에 파견된 동지겸사은사행의 활동 역시 주목된다.

1874년의 사행은 정사 李會正, 부사 沈履澤, 서장관 李建昌으로 구성되었으며 강위가 전해에 이어 이들과 동행하였다. 이들이 출발한 것은 10월 28일이었는데 이때는 ‘臺灣事件’⁽¹²³⁾의 여파로 청이나 조선 모두 분위기가 어수선한 시기였다. ‘대만사건’으로 청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으며 1860년대 이래 추진되어 온 양무운동의 허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양무파에 대한 청류파의 공격이 가속화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양무운동에 실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면서 자강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었다.⁽¹²⁴⁾ ‘대만사건’의 여파는 조선에도 크게 미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일본이 대만에서 부대를 철수한 후 조선을 침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프랑스와 미국이 일본을 원조할 것이라는 정보가 1874년 6월에 청 예부로부터 전달되었기 때문이다.⁽¹²⁵⁾ 영의정 李裕元과 같은 경우

(121) 장세준이 정건조에게 서양 각국의 정형에 관한 책이 북경에 많이 있으니 가져다 보도록 권고했던 것으로 보아(『姜瑋全集』下, p.847), 북경주재 미국영사에 보고문 가운데 있는 각종 서적을 구입해간 조선인은 정건조 일행을 지칭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122) 『明美堂集』 권19, 「姜古權墓誌銘」

「會君從鄭判書赴燕京 歸以其所與中國人談者爲文示余 皆舊所禁諱 使人駭怖 君且讀且噫且笑 意氣流動 余則默然 固有以卜之矣」

(123) ‘臺灣事件’은 1871년 유구 표류인들이 대만인들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빌미로 1874년 5월 일본이 대만을 침공하여 보상을 요구했던 사건이다. 청은 일본에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한채 10월에 50만냥의 보상금 지불에 합의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124) 崔熙在, 1985 「1874~5년 海防·陸防論議의 性格」 『東洋史學研究』22, p.99

(125) 『高宗實錄』 高宗 11년 6월 24일

최근에 무기가 정예화되고 군량도 충분하여 만약의 사태가 발생해도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자신있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지만⁽¹²⁶⁾ 조선은 일본의 침범설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었다.⁽¹²⁷⁾ 이미 1867년에도 일본이 군함을 동원해 조선을 치고자 한다는 내용의 자문이 청에서 전달된 적이 있던 데다가 1868년부터는 일본의 國書 문제로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일본의 침략설에 더욱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1874년의 동지사행은 이처럼 긴장된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 임무가 막중하였다. 임무의 중요성을 인식한 듯 사행사들은 연행기간 동안 청측의 여러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정보수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것을 볼 수 있다. 張世準·黃鈺·徐郁 등이 주요 접촉대상이었는데 이들과의 필담 내용이 『강위전집』에 『北游續談艸』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北游續談艸』 안에는 「談艸設問」(강위와 황옥의 필담), 「梅史談艸」(강위와 장세준의 필담), 「甯齋與張梅史談艸」(이건창과 장세준의 필담), 「露香談艸」(강위와 황옥의 필담), 「甯齋與徐頌閣談艸」(강위와 서부의 필담), 「甯齋與黃孝侯談艸」(이건창과 황옥의 필담)의 6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甯齋與徐頌閣談艸」는 4차례에 걸친 필담 내용이므로 중국 인사들과 적어도 9차례 이상의 필담을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필담 자리에는 삼사신이 모두 참석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필담의 주체가 모두 이진창과 강위로 되어 있는 것은 이들이 비교적 국제정세에 밝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행사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국제정세의 파악에 있었으며 그 가운데에도 ‘대만사건’을 일으킨 일본의 의도나 동향이 단연 관심의 대상이었다.⁽¹²⁸⁾ 형부시랑 황옥과 두 차례에 걸쳐 필담을 나누었던 강위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道光年間に 黃爵滋 등이 아편 엄금론을 주장하여 아편을 불태우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한 이후 서양의

(126) 『承政院日記』 高宗 11년 6월 25일

(127) 『姜瑋全集』下, 「談艸設問」, p.855

「敵邦曩承飛咨 委示據咨辭意 沈公葆禎奏洋將日意格貽書幕府 以爲倭犯坭灣退兵之後 又當從事高麗 伊時 兵機似有迅疾之勢 舉國之情 咸懷憂憤」

(128) 尹素英은 앞 논문에서(pp.183~188) 1874년 사행의 일본인식을 이진창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침탈을 받고 그 틈에 태평천국군이 봉기하는 등 오히려 중국이 혼란스러워졌는데 正論이 어떻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아편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세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 王道를 숭상하면서도 천주교가 성행하는 것은 왜 그대로 묵인하는지 하는 등이었다. 이러한 궁금증과 함께 강위가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의문은 일본이 한편으로는 사신을 보내 화호를 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을 침공하고 또 서양인들은 겉으로 일본을 비난하면서 속으로는 자금을 빌려주어 일본을 지원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¹²⁹⁾ 국가 간의 관계도 의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난다. ‘대만사건’이 서양의 원조 하에 이루어졌다는 소문은 사건 직후부터 있었으며⁽¹³⁰⁾ 실제로 ‘대만사건’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덕택이었다. ‘대만사건’으로 서양과 일본에 대해 각각 가지고 있던 위기인식이 결합되면서 위기감의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여기에 월남이 프랑스에 멸망당하고 유구가 일본에 병합되었다던가, 미국 내에 남북전쟁이 벌어졌다던가, 프랑스와 프로이센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 프랑스가 패배했다는 등의 소식을 접함으로써⁽¹³¹⁾ 국제사회에서 약육강식의 침략전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으며 조선도 언제든 침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국제정세가 조선에 위태로운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그 대응방안의 마련은 시급한 문제였다. 사신 일행과 접촉했던 청측의 인사들은 한결같이 무조건적인 주전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장세준은 공을 내세우기

(129) 『姜瑋全集』下, 「談艸設問」, p.857

「台灣之事 尤所不詳 日本之君 一邊遣使入觀 乞修和好 懇請紛紜 而一邊構兵 侵犯上國之地 至欲踞爲己有 洋外各夷 舉斥其非 而潛自借銀 至八十萬之多 此其情狀 眩晃莫測」

(130) 權錫奉, 1986 「清 同治年代 洋務官僚의 對日觀」 『清末 對朝鮮政策史研究』 (일조각), p.30

(131) 『姜瑋全集』下, 「甯齋與黃孝侯談艸」, pp.900~901. 황옥은 종교문제로 프랑스가 터어키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 프랑스가 패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로 보아 크림리아 전쟁과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을 혼동한 채 이해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종교문제가 개입된 것은 크림리아 전쟁이지만 프랑스와 터어키 간의 전쟁이 아니며, 프랑스가 패배한 것은 1870년의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이었다.

좋아하는 자들이 나라의 이해는 돌아보지 않고 싸워야 한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이는 체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며 만약 싸워서 패한다면 나라가 전복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하여 주전론적 견해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¹³²⁾ 황옥 역시 자신의 역량을 돌아보지 않은채 전쟁을 주장하는 것은 外患을 부르는 일임을 상기시키고 있다.⁽¹³³⁾ 주전론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대만사건' 이후 비등하던 청의론을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주전론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청측 인사들이 제시한 대응책은 주로 양무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는 물론 장세준이나 황옥 등이 본래 양무론을 견지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보아야 할 것은 양무파 인사들과 접촉을 가졌던 강위나 이견창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흥선대원군 집권기의 주전론적 어양책은 고종 친정기에 들어서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불만 역시 계속되고 있었다. 이견창은 황옥과의 필담에서 조선이 군사에 힘쓰지 않고 예의만을 지키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外患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自強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¹³⁴⁾ 이러한 지적에는 흥선대원군 집정기의 국방정책 뿐만 아니라 대원군 집정 당시의 수준을 탈피하지 못한 고종 친정 초반의 그것에 대한 비판의 뜻이 함께 담겨 있다. 이로 인해 당시의 어양책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조선 지식인들은 청의 양무운동에서 보완책으로서의 효용성을 발견하고 양무파 인사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전에 몇 차례 장세준을 만난 일이 있던 강위가 다시 그를 방문했던 것은 양무를 바탕으로 한 그의 대응론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간주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견창과의 필담에서도 좌종당·증국번·曾國荃·이홍장 등 양무파의 능력과 역할을 높이 평가한 바 있던⁽¹³⁵⁾ 장세준은 강위에게

(132) 『姜瑋全集』下, 「梅史談艸」, p.864

(133) 『姜瑋全集』下, 「寧齋與黃孝侯談艸」, pp.895

(134) 『姜瑋全集』下, 「寧齋與黃孝侯談艸」, pp.895~896

(135) 『姜瑋全集』下, 「寧齋與張梅史談艸」, pp.867~869

서양에 대한 진정한 방어책은 양무의 추진에 있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기계나 언어와 같은 서양인들의 長技를 습득해야 하며 그렇게 한다면 저들은 믿을 바가 없어져 결국 스스로 몰려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요지이다.⁽¹³⁶⁾ 이전에 정건조에게 권고하였던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다. 즉 정건조에게는 주로 서양과의 화호를 강조하였지만 이견창과의 필담에서는 서양세력의 견제라는 점에 비중을 두고 있던 것이다.⁽¹³⁷⁾ 이로 인해 정건조가 접촉하였을 당시에 비해 장세준과 사행사들의 관심은 상당히 근접해 있는 상태였다.

양무와 관련하여 조선 지식인들이 무엇보다도 주목하였던 것은 중국이 서양에 유학생을 파견해 서양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¹³⁸⁾ 화려한 중화문화를 자랑하는 중국이 서양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유학생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었다. 중국이 바깥으로부터 유입된 문물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있었다고 해도 외부 문물의 수용을 위해 학생을 파견한다는 것은 조선 지식인들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이견창은 황옥에게 서양이 강한 이유가 군사와 기계의 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 하면서 이홍장이 사람들을 모아 서양의 중학에 보내 기예를 배워오도록 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를 묻고 있다.⁽¹³⁹⁾ 그에 대해 황옥은 일찍이 동자들을 중학에 보내 언어, 문자와 기예를 익히도록 했으며 그 결과 선박이나 대포에 관한 지식을 배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유학생 파견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였다.⁽¹⁴⁰⁾ 이견창은 유학생 파견을 다

(136) 『姜瑋全集』下, 「梅史談艸」, p.864

「學機器學言語也有深意 欲盡得洋人之所長也 使彼無可恃也 以彼之術攻彼之心也 我習彼術以其述攻之也 非以夷攻夷也 且夷知我能彼之術 亦無所謂居奇矣」

(137) 장세준의 인식이 1년 사이에 이처럼 많이 변화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서양이 '대만사건'을 배후에서 지원했던 사실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38) 유학생이 본격적으로 파견되는 것은 1872년 8월 詹天佑, 容尙謙 등 제1진 30명이 미국으로 출발하면서부터였다. 중국의 유학생 파견에 대해서는 辛勝夏, 1985 「同治時代 對外關係와 對應」 『근대 중국의 서양인식』 (고려원), pp.174~183 참조.

(139) 『姜瑋全集』下, 「霽齋與黃孝侯談艸」, p.900~901

(140) 『姜瑋全集』下, 「霽齋與黃孝侯談艸」, p.901

른 사람도 아닌 세인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홍장 같은 인물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⁴¹⁾ 1860년대 중반에만 해도 이홍장은 서양세력의 중국진출을 강력히 저지하고 있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었으므로⁽¹⁴²⁾ 인식의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강위의 경우도 황옥과의 필담에서 曾國藩이 젊은이들을 서양에 보내 그곳의 기계제도를 배워오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性情을 어지럽히지 않고 정치를 행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었다.⁽¹⁴³⁾ 즉 서양의 종교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기술적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중국에서는 이미 17세기부터 논의되고 있었으며 조선에서도 18세기 후반에 북학론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되던 것이었다. 당시 북학론자들은 종교와 분리하여 기술적인 부분만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서양 기술의 원류는 중국에 있다는 이중의 안전 장치를 마련한 위에서 ‘西器受容論’을 전개하고 있었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 西敎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서교와 서기를 분리할 수 있다는 의식이 약화되고 또 서양 기술의 원류가 중국에 있다는 점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자연히 서기수용에 대한 논의도 위축되었다. 그런데 이제 1860년대에 들면서 서양세력에 대한 대응력의 확보를 위해 서기를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서교와 서기의 분리 가능성이 다시 관심을 끌게 된 것

「曾有一主事 帶諸童子入彼中 學其言語文字 而於技藝 自然兼習 緣彼技藝專尙器械 於船砲等均得用」

(141) 『姜瑋全集』下, 「寧齋與徐頌閣談艸」, p.876

「又如李相諸公 戮力靖難 天下想望其風彩 而乃以募童進洋學習技藝爲事 是固不可已而然歟」

(142) 『羅巖隨錄』 p.33 「灣尹李建弼上雲宮書」(1866.12.26)

「總督李鴻章 智略過人 一自總督江南之後 出令曰 在前以我國服色 爲洋人之隨從者 固當一從殺無赦 而令前也 姑恕之 從今以後 若我國服色 學洋學從洋徒 則盡殲乃已 以此嚴立科律云 此是剪其羽翼 絕其奸細之大策也 上國有人矣 於我國何憂哉」

(143) 『姜瑋全集』下, 「談艸設問」, p.857

「曾文正公 學術醇粹 將韜軼群 掃除褻 幾清中夏 文武吉甫 功烈茂矣 何以齋送童子 就學夷方技巧器械 猶爲近之 能不浸淫 移人性情 以正人而行稗政 此未明者三也」

이라 하겠다. 강위의 질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談艸設問」은 강위의 질문만을 모아 놓은 것이어서 황옥이 대답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다른날 필담에서 양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어 참고가 된다. 황옥은 양인들의 선박과 기계는 매우 뛰어나서 전통적인 守法이나 戰法으로는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지만 서양의 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중화의 문물로 오랑캐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전에는 통하는 원리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그것을 고집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¹⁴⁴⁾ 서양을 제압하기 위해 서양의 기술을 이용한다는 양무론의 본질이 함축되어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견창이나 강위는 청의 양무파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당시의 국제정세나 양무운동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처음으로 연행하였던 이견창은 특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¹⁴⁷⁾ 그런데 정건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견창 역시 귀국하여 청측 인사들과 필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별단에서 이견창은 중국이 일본에 유구민에 대한 피해보상비로 10만 냥, 대만에서 포대를 설치하고 길을 닦는 데 든 비용으로 40만 냥을 지불했다는 등 주로 ‘대만사건’의 경과에 대해 언급하였을 뿐이다.⁽¹⁴⁶⁾ 1872년 이후 고종은 사행사들에게 중국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등 대외정세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복명과정에서 이견창 일행과도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¹⁴⁷⁾ 현재로서는 그 내용을 전혀 짐작할 길이 없다. 하지만 복명한 자리에서 이견창이 양무운동에 관한 사실을 보고하였을 가능성은 별로 커 보이지 않는다.

양무에 대한 지식인들의 관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44) 『姜瑋全集』下, 「露香談艸」, p.873

「洋人狎處圖利而已 [如上海天津通商 京城置館之類] 固不甚拒之 而其船隻器械之堅利 實古來所未有 若僅按古法 則守法戰法 一無可恃 故不得不漸用洋法 以求同其利 用夏變夷 古今所遵 當今時勢 有難拘執者」

(145) 『明美堂集』 권16, 「明美堂詩文集敘傳」

(146) 『同文彙考』 補續, 「冬至兼謝恩行書狀官李建昌見聞事件」

(147) 『同文彙考』에는 이견창 일행의 복명 일자가 1875년 4월 3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연대기 자료에는 복명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

시기에 양무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은 화의와 관계된 이야기를 발설했다가는 무슨 화를 입게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되는 조선 정부의 경색된 정책에 있었다. 하지만 양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지식인들에게도 고민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고민은 양무론의 주요한 목적은 서양에 대한 대응력의 확보에 있지만 양무의 추진을 위해서는 서양과의 일정한 관계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 있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정한 관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이다. 이 문제는 결국 서양의 문명 가운데 기술적인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무론은 서기의 선택적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었지만⁽¹⁴⁸⁾ 사람들의 성정을 해치지 않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강위의 질문에서 나타나듯 조선 지식인들은 그 부분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조선에는 사상적으로 서기의 수용에 대한 논리를 어떻게 정비하며, 정책적으로는 화의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었다고 하겠다.⁽¹⁴⁹⁾

맺 음 말

제1차 중·영전쟁 이후 고조되기 시작한 서양에 대한 위기인식은 제2차 중·영전쟁을 계기로 하여 결정적으로 증폭되었다. 그간 일면으로 서양세력

(148) 『李鴻章全集』1(海南出版社), 권9, p.323 「置辦外國鐵廠機器揚」

「中國文物制度 迥夷外洋郵秦狃之俗 所以郵治保邦 固丕基於勿壤者 固自有在 必謂轉危爲安 轉弱爲強之道 全由於仿習機器」

(149) 다소 무리한 해석일지는 모르지만 이견창과 강위 사이에도 양무와 화의의 관계 설정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견창의 경우는 양무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화의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던 반면 강위는 서양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양무를 추진하려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견창은 『강위전집』의 서문에서 정치나 국제정세에 대한 강위의 논변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적고 있는데 이는 화의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후에 두 사람이 정치 노선을 달리하게 되었던 것도 이러한 입장의 차이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조선 후기 사상계의 분화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에 대한 방과제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서양의 무력에 굴복하였다는 사실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언제든 서양세력이 조선으로 향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셈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지식인들은 중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중국을 통해 서양세력의 동향과 서양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식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렇게 파악된 정보는 조선이 대응방향을 결정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60년대 초반 조선 지식인들은 중국이 내부적으로 태평천국군을 비롯한 각종의 민란을 겪고 있던 데다가 서양의 침탈까지 가중됨으로써 그 앞날을 점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신유정변’을 통해 새로 집권한 공친왕과 서태후 중심의 정권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걸기도 했지만 중국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신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유보적이었다. 자연 조선 사행사들의 관심은 서양세력과 민란의 동향 파악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때문에 1860년대 초반 공친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던 양무운동에 대한 정보는 거의 갖고 있지 못하였다.

중국의 상황에 대한 인식은 1864년 태평천국군의 진압을 계기로 하여 상당히 변화하게 된다.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면서 청이 내부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그러한 안정을 바탕으로 서양세력에 대해서도 통제력을 행사하는 등 청조가 ‘中興’하고 있다는 인식이 나타나는 것이다. 공친왕과 서태후 중심의 정권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청이나 일본에서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는 양무와 관련된 정보도 입수되었다. 청에서는 ‘중흥’ 인식이 淸議와 깊이 관련되는 반면 양무에 대해서는 비판적 경향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조선에서도 반드시 그랬던 것은 아니다. 조선에서는 양무운동의 추진주체가 공친왕이라는 사실이 공친왕 정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결합되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병인양요 이후 조선에서 주전론이 대외정책의 기초로 자리잡게 되면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갖지는 못하였다.

병인양요는 서양의 위협이 조선으로 향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간의 우려를 현실로 확인시켜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흥선 대원군 중심의 집정

세력은 대외정책의 방향을 주전론으로 확실히 정리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주전론은 기존의 방어방식을 통해서도 서양세력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점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었다. 반면 근대적인 무기의 도입으로 대표될 수 있는 서양기술의 차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때문에 서양세력의 동향에 주목하고 있던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조선의 국방정책이 실제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들 지식인들은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서양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런 점에서 청에서 전개되고 있던 양무운동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양무운동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관심을 잘 보여준 것은 1873년의 정전조 일행과 1874년의 이견창 일행이었다. 이들 사행사들은 청의 양무파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국제정세를 파악하였으며 양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조선 사행사들의 관심은 기본적으로 '強兵'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富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던 청의 양무운동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는 등 특색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양무에 대한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1870년대 전반까지도 양무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는 못하였다. 그 주요한 원인은 조선 정부의 주전론적 대외정책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 양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지식인들도 양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西敎의 확산과 같은 양무의 수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불안감은 결국 西器의 선택적 수용이 가능한가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었다. 이제 조선 지식인들에게는 서기 수용에 대한 논리의 재검토를 통해 서기 수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내는 일이 과제로 제기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강사)